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학년도
석사학위논문

도보관광여행자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 제주 올레길을 대상으로 -

지도교수 : 박 석 희

경기대학교 대학원

여가관광개발학과

이정훈



도보관광여행자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 제주 올레길을 대상으로 -

이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여가관광개발학과

이 정 훈

이 정 훈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1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v
그림목차	vi
논문개요	v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3
제 3 절 연구방법과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도보관광여행의 개념과 연구동향	6
1. 도보관광여행의 개념	6
2. 도보관광여행코스 개발현황	7
3. 도보관광여행관련 연구동향	10
제 2 절 관광동기의 충족과 관광만족	11
1. 관광동기의 충족	11
2. 관광만족의 개념	14
3. 관광동기 충족과 관광만족간의 관계	18

제 3 절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측정	20
1. 주관적 웰빙의 개념	20
2. 주관적 웰빙관련 연구동향	23
3. 주관적 웰빙의 측정	26
 제 3 장 연구방법	 27
제 1 절 연구의 설계	27
1. 연구 모형	27
2. 연구의 가설	28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29
1. 도보관광여행	29
2. 관광동기의 충족	29
3. 관광만족	30
4. 주관적 웰빙	30
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1
1. 설문지 구성	31
2. 표본의 선정방법	33
3. 자료의 수집	33
4. 자료의 분석방법	34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35
제 1 절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35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5
2. 도보관광여행 참여행태에 관한 사항	37

제 2 절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39
1. 측정척도 검증 방법	39
2. 측정척도 검증	42
제 3 절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가설 검증	53
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53
2. 도보관광여행 동기과 관광만족 간의 관계	55
3.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56
4. 도보관광여행 동기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57
5. 가설 검증 결과와 논의	58
제 4 절 도보관광여행자 특성별 차이분석	61
1. 도보관광여행 횟수에 따른 차이 검증	61
2. 도보관광여행 참여경력에 따른 차이 검증	62
3. 도보관광여행 참여시간에 따른 차이 검증	64
4. 도보관광여행 지속 참여의사에 따른 차이 검증	65
5. 도보관광여행 동반인원에 따른 차이 검증	67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6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8
제 2 절 논의 및 시사점	72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3
참 고 문 헌	74
부록: 설문지	82
Abstract	86

표 목차

<표 2-1>	전국 도보관광여행 코스 현황	9
<표 2-2>	국외 연구자들의 관광만족에 대한 정의 요약	15
<표 2-3>	소비자 만족/불만족 모형의 주요 특성	17
<표 2-4>	주관적 웰빙의 기본요소	22
<표 2-5>	주관적 웰빙의 다섯 가지 접근이론	23
<표 3-1>	설문 구성 내용	31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6
<표 4-2>	응답자의 도보관광여행 참여행태별 특성	38
<표 4-3>	모형의 적합도 기준	41
<표 4-4>	도보관광여행 동기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42
<표 4-5>	도보관광여행 동기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43
<표 4-6>	도보관광여행 동기 항목의 SMC값	44
<표 4-7>	도보관광여행 동기 항목의 상관관계	45
<표 4-8>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도보관광여행 동기 측정 항목 제거	47
<표 4-9>	관광만족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48
<표 4-10>	관광만족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48
<표 4-11>	관광만족 항목의 SMC값	49
<표 4-12>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50
<표 4-13>	주관적 웰빙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50
<표 4-14>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 SMC값	51

<표 4-15> 주관적 웰빙 항목의 상관관계	51
<표 4-16>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 제거	52
<표 4-17>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준 및 결과	54
<표 4-18>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 결과	55
<표 4-19>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관광만족 간의 관계	56
<표 4-20>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 결과	56
<표 4-21>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57
<표 4-22> 도보관광여행 참여횟수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62
<표 4-23> 도보관광여행 참여경력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63
<표 4-24> 도보관광여행 참여시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64
<표 4-25> 도보관광여행 지속 참여의사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	66
<표 4-26> 도보관광여행 동반인원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67

그림 목차

[그림 2-1] 관광동기 유발의 과정	13
[그림 3-1] 연구 모형	27
[그림 4-1]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나타난 인과계수 ..	46
[그림 4-2] 관광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나타난 인과계수	49
[그림 4-3] 주관적 웰빙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나타난 인과계수	52
[그림 4-4] 연구모형 검증 결과	54
[그림 4-5] 가설검증 결과 종합 모형	60

논문개요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자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것으로, 여가의 한 부분인 관광에 대한 연구에 주관적 웰빙을 활용함으로써, 관광자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도보관광여행 동기가 방문객의 관광만족도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 정서균형 등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지를 도보관광여행 열풍의 시발점이자 대표지역으로 현재 24개 루트(본 루트 19, 알파 루트 5)가 개발되어 운영중인 제주 올레길로 선정하고 선행연구 고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가설과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상조건이 좋아 도보관광여행자의 방문이 많았던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주 올레길 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7루트를 중심으로 7, 8, 9 10루트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요 변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모형을 검증하고 변수들 간의 서로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도보관광여행, 관광동기 충족,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도보관광여행은 도보 중심의 탐방로를 걸으며,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사색과 명상을 통해 새로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관광여행으로 일탈·자기성찰·지역체험·위신·자연감상·사교 등이 도보관광여행의 동기로 구분된다. 관광동기는 관광행동 또는 관광활동을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추동하는 힘으로, 관광동기가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것을 관광동기유발이라고 하며, 체험한 후의 심리상태를 다루는 관광동기를 관광동기충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관광만족은 그 대상(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와 관광활동이 관광객 자신의 경험에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관광활동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로 얻어진 지각수준과의 비교·평가에 의해 생긴 주관적인 심리상태이다. 만약 체험 후 느낌과 관광전 기대와 비교하여 만족감이 생기면 여기서 관광객들은 만족감을 느끼며, 체험전후 기대감 비교로 불쾌감을 가지게 되면 관광객은 불만족을 가지게 된다. 주관적 웰빙은 스스로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적 평가 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과 같은 감정과 인지도 평가 정도로 개인적 감정에 의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과 정적정서·부적정서 등 정서 균형으로 구분된다. 높은 주관적 웰빙 수준이란 높은 정적정서와 낮은 부적정서, 그리고 높은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측정 척도를 활용하여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은 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관광만족은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균형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도보관광여행은 주관적 웰빙의 변수인 삶의 만족과 정서균형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은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광만족은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충족은 관광만족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자의 참여행태에 따른 차이검증 실시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동적 자세로 도보관광여행자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최초 및 초기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재방문 유도를 통한 적극적 충성고객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도보관광여행은 하루 이내의 경유 또는 통과형 자원이 아닌 체류형 관광자원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체류 및 숙박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도보관광여행의 지속 참여의사가 80%이상을 높게 나타났다. 넷째,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은 2~4인의 소규모 그룹일 때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웰빙은 5인 이상의 단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걷기가 사색·명상 등 개인 중심의 체험형 여가활동이라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과로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웰빙은 심리학, 복지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관광학에서 부족한 특정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도보관광여행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함으로써 도보관광여행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특성 고찰에 일조하였다. 셋째, 기존 관광동기의 개념범위를 확장하여 관광동기유발, 관광동기충족으로 확장하였다. 넷째, 도보관광여행자의 동기충족에 따른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도보관광여행자의 동기충족이 주관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다섯째, 차이검증을 통해 도보관광여행지의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산업화 및 도시화가 가져온 경제적 풍요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 여가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심신의 피로와 정신적 안정을 찾는 귀소본능의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식주의 충족만이 삶의 조건이 아니며, 성취감·안전성·자아실현 등 고차원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후기 산업적 가치관은 물질보다는 정신, 소유보다는 존재,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념인데, 웰빙(Well-being)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의 현대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박석희, 2005).

웰빙은 몸과 마음의 건강·삶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이정순, 2004) 것으로 1960~70년대 미국 히피니즘과 연관되어 파생되었다. 히피문화는 반전운동과 민권운동 정신을 계승한 중산층 이상 시민들이 고도화된 첨단문명에 대해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파생된 삶의 방식이다. 따라서 웰빙은 자연에서 삶의 방법을 추구하며, 물질만능의 소비사회를 부정하고 자연주의에 입각한 정신적이며 소비적인 생활패턴을 추구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Brake, 1980; 박석희 2005 재인용). 2000년 이후 웰빙은 새로운 생활 트렌드의 하나로 정착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현저하다. 최근 한 인재관련 회사에서 2·30대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인식조사결과, 직장생활을 통해 얻고 싶은 최우선 목표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적 부’(28.19%)나 ‘자기가치 실현’(17.9%)보다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절한 조화’(41.9%)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LG 주간경제, 2004). 더 이상의 고소득이나 명예보다 여유로운 개인생활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정순, 2004). 웰빙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는 관광을 비롯한 여가활동에 대

한 관심 증대와 종류의 다양화를 가져와 국민 1인당 여가활동 개수가 2006년 평균 18개에서 2008년 기준 1인당 평균 23가지로 증가(여가백서, 2008)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정순·전원배(2005)는 여가활동의 일환인 관광활동의 참가정도를 통해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를 충족한 상태인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러한 여가만족이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웰빙에 대한 관심은 특히 요가·템플스테이·명상 등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체험형 여가활동을 확산시켰으며, 최근 이러한 체험형 여가활동의 하나로 걷기가 부각되고 있다.

걷기란 소박한 인간의 상징이며 자연 안에서 존재하는 방법으로 오직 자신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본질적으로 진보하지 않은 자연의 행위(이향희, 2008)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걷기의 매력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와 지리산을 단지 걷기 위해 찾는 여행객이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걷기 신드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외 걷기대회 행사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되어지는 추세다(박영아·현용호, 2009). 특히, 제주 올레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방문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 및 60여개 도시에서 100여개의 본격적인 도보관광여행 코스를 조성, 또는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걷기 중심의 도보관광여행은 삶의 질을 제고하며 ‘웰빙’의 가치를 발현하는 체험형 여가활동으로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도보관광여행이 웰빙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만 있을 뿐, 경험적·실제적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현재, 도보관광여행에 관한 논문은 탐방로를 주제로 한 연구분야 외 도보관광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국외 논문으로는 트레킹 관련한 소수의 논문을 찾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개인이 트레킹을 하는 동안 거리 및 속도 시간, 그리고 멈추는 횟수 등이 얼마인지를 관찰하는 연구노트(Keul & Kühberger, 1997)와 모험관광의 관점에서 트레킹을 하는 관광객의 행동을 묘사한 연구(Gyimóthy & Mykletun, 2004)가 전부인 것

으로 나타났다(박영아 · 현용호,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이 국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관광여행자의 내적 상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 연구를 통해 도보관광여행이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제까지의 관광자 행동 연구는 주로 공급자중심의 관점에서 관광자를 유치하는 전략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고(심상화, 2001), 관광과 관련된 연구와 관심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이유를 관광에서 심리학적 연구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유재경, 2006). 심리학적 관점의 여러 연구자들은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이 진공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전기대나 동기와는 별개로 준비 안 된 새로운 욕구가 발현될 수 있으며, 또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Pearce, 1982). 관광활동은 일련의 시간, 공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며 관광을 하는 동안 개인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개인의 동기나 기대는 변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동기가 유발될 수 있고, 심리적 체험 또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체험 단계 및 사후 평가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결국, 관광현상을 관광지라는 상품 중심이 아니라 관광행동 자체라는 활동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관광의 전체적인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박민혜, 2001).

주관적 웰빙은 심리학, 복지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정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가의 한 부분인 관광에 대한 연구에 주관적 웰빙을 활용함으로써, 관광자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도보

관광여행의 동기가 관광만족도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의 관계를 검증한다.

둘째, 관광만족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검증한다.

셋째,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검증한다.

넷째, 도보관광여행자 참여행태 분석을 통해 도보관광여행 탐방로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과 범위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보관광여행, 관광동기충족,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 국·내외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표본은 제주 올레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직접 배포·회수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고,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충족과 관광만족 그리고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한 경로분석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2. 연구 범위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 공간적, 시간적, 대상적 범위로 구분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도보관광여행과 관광동기충족,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한 문헌분석과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충족이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도보관광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보관광여행 열풍의 시발점이자 대표지역으로 현재 24개 탐방노선이 개발되어 운영중이며 2010년 약 45만 5천명이 방문한 제주 올레길로 한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24개 루트 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7루트¹⁾를 중심으로 7, 8, 9 10루트에서 4명의 설문조사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기상조건이 좋아 도보관광여행자의 방문이 많았던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대상적 범위는 제주 올레길을 걷고 있거나 잠시 휴식 중이 도보관광여행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 제주관광공사(2010), 제주 올레길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도보관광여행의 개념과 연구동향

1. 도보관광여행의 개념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는 여행을 활동목적에 따라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위락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다녀오는 ‘순수관광여행’과 귀향·출산·성묘·관혼상제·개인적 용무 등의 ‘가사여행’, 출장·어로작업·향로취향 및 지역을 이동하며 하는 사업상의 여행을 의미하는 ‘업무여행’, 가사여행 또는 업무여행 후 남는 시간에 순수관광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겸목적 관광여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사한 의미이나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들인 도보여행·도보관광·트레킹·하이킹·걷기여행 등을 통일하여 사용하기 위해, ‘도보’라는 순수 및 겸목적의 관광여행인 ‘도보관광여행’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도보관광여행을 도보여행으로 정의하여 걷기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걷기 중심의 길 만들기과 문화 확산은 이미 전 세계의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계적 관광사회현상으로 길을 따라 종교·문화·역사자원이나 자연·생태자원 등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학습하기를 즐기는 걷는 여행이라 하였다.

보통 걷기라고 하면 트레킹(trekking)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된다. 트레킹의 어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정처 없이 이동하는 여행을 의미하는 ‘trek’에서 유래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산과 들을 느릿하게 걸으면서 여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 고산에서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야영숙박을 하며 정상주변에 있는 오솔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박영아·현용호, 2009).

이렇듯, 도보관광여행은 동일한 걷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트레킹의 그

것과는 달리, 느리게 걸으며 얼마나 멀리 갈지, 얼마나 오래 머물지, 얼마만큼 경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통해 관광을 즐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Breton(2000)은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 놓는 것’이라 하여 도보여행이 개인의 잡념을 없애고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 하였으며, Solnit(2000)은 순례와 등산, 도보여행을 비교하여 순례는 성화된 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걸으면서 개인의 성찰을 도모하거나, 등산은 정복의 욕구가 강하여 상징적 결과를 중시하며, 도보여행은 결과가 불확실하고, 도착의 의미가 더 확실하고 도착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다(박시사·노경국, 2010).

도보관광여행을 위한 핵심시설로 야생길, 농산촌 벽지 등의 일정한 길이 없는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길인 탐방로는 탐방자원(자연공원, 습지, 옛길, 문화재보호구역), 길, 탐방시설(최소의 편의시설), 탐방지역(생태탐방로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지역), 거점지역(탐방객이 도착하는 지역)으로 구성되며(문화체육관광부, 2010), 걷기라는 직접경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학습효과가 있으며 지역 환경보전에 관심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박석희, 2007).

이와 같이 도보관광여행은 도보 중심의 탐방로를 걸으며,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역사를 이해하고 사색과 명상을 통해 새로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관광여행이라 할 수 있겠다.

2. 도보관광여행코스 개발현황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도보관광여행에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도보관광여행의 대표 사례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2천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순례자들의 고난과 극기를 위한 길로 인식되어있으며, 일본의 경우 일본 전역을 종단, 횡단, 순환하는 길이 1970년부터 자연보도라는 이름으로 조성되

었다. 또한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National trail, Walk way, Walking Track 등의 이름으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도보관광여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도보관광여행 탐방로 조성 열풍이 불어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탐방로가 조성 운영 또는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제주 올레길은 국내 도보관광여행의 대표 코스로 제주도를 고품격 체험 관광지로 변화시켰다.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 해안 전역을 코스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총 24개 루트(본 루트 19, 알파 루트 5)가 개발되어 도보관광여행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올레는 제주 토박이말로 집 마당에서 마을길로 들고나는 어긋 길을 뜻하는 말로, 제주만의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져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본 루트 중 제일 짧은 루트는 7.1km의 대평포구·화순올레 9루트로 약 2~3시간이 소요되며 가장 긴 루트는 22.9km의 표선·남원포구로 약 6~7시간이 소요된다.

내륙지역에서 대표적인 도보관광여행코스인 지리산 둘레길은 2012년까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의 장거리 코스이다. 지리산 곳곳에 걸쳐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정비하여 환(環)형으로 연결하고 있다. 코스 정비의 주요 원칙은 보전중심(옛길을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 안전중심(차량통행길, 안전위험길, 해발고도가 높은 길 등 지양), 경관중심(지리산의 강, 들녘, 마을을 보면서 걸음), 자원중심(자연환경, 역사,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또한, 강원도 산소길은 강원도에서 조성중인 코스로 DMZ와 백두대간, 남·북한강 등을 연결하여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동할 수 있는 코스이다. 도보관광여행 탐방로 475km, 자전거길 1,226km에 총 70개 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 100여개의 전국 도보관광여행 코스 조성 및 추진 현황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전국 도보관광여행 코스 현황

지역	지역, 명칭
강원	강원 산소(O2)길, 바우길
경기	여주 여강길·여강 역사문화체험길, 오산 동부코스, 안성 두리마을 산책로, 시흥시 능내길
경남	마산시 목학산 둘레길, 진해시 장복하늘 마루산길~천지봉해오름길, 사천시 노을길, 사천시 석양길, 함안군 에코싱싱로드, 창녕군 우포늪 둘레길, 거창군 서출동류의 물줄기와 함께하는 길, 밀양시 밀양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 체험길, 지리산길, 하동군 박경리 토지길
경북	안동시 퇴계 오솔길(예던 길),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회방 옛길·용암산 탐방로, 문경시 문경새재 과거길, 영덕군 동해트레일·동해안 블루로드·달맞이 탐방로·해맞이 탐방로·목은이색 탐방로·팔각산 탐방로·칠보산탐방로·오십처 탐방로, 울진군 심이령 옛길·금강송 숲길·백일홍 꽃길 조성탐방·월송정~망양정 자전거거리 조성·신선계곡 생태탐방로 조성경주시 화랑도 수련길, 경산시 언거랑 웰빙코스, 고령군 대가야 역사체험탐방로, 군위군 우천 데 탐방로, 김천시 괴방령 과거길, 상주시 낙동강 투어로드·낙동강 자전거 탄풍경·화북 우복동길·백화산 왕의 길·사벌 사벌국길, 청도군 남산 13곡, 청송군 주왕산, 문화생태 관광루트, 삼척시청 동해트레일~관동대로길, 경북 동해안길, 남동정맥 트레킹로드
전남	강진군/영암군 정약용 유배길, 목포시 갯바위길, 영광군 남도갯길 6000리길, 순천시 남도 삼백리길, 나주시 삼남대로 영산강 생태 탐방로, 완도군 소완 가학산·대봉산 등산로, 예송~보옥간 탐방로, 강진군 삼남대로를 따라가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전북	고창군 불끈불끈 힘이 솟는 복분자풍천장어길·질마재길, 남원시 소리꾼이 들려주는 동편제 판소리길, 장수군/진안군 금강 역사기행로 따라 걷기, 전주시 둘레산 두레강 잇기, 진안군 마실길, 부안군 변산 마실길, 군산시 망해산 둘레길, 익산시 백제의 숨결 둘레길, 완주군 위봉 산성길, 장수군 마루현길,전북도 전북길(에움길)
충남	공주시 스토리가 있는 솔마바람길, 예산군/서산군 가야산 내포문화길
충북	제천시 자드락길, 보은군 오리숲 산책로/세심정 산책로, 괴산군 산막이 예길
광주	무등산 옛길
대구	대구 올레길, 앞산자락길, 도심문화 탐방 골목투어
대전	계족산 맨발 숲길, 둘레산길 잇기
부산	낙동강 버들길, 부산길, 해운대 문탠로드, 이기대 해안산책로, 동백섬 순환도로, 삼포해안길, 절영 해안산책로, 암남공원 해안산책로, 두송반도 해안길, 천가동 해안산책로, 갈맷길
서울	그린 트레킹 서클
울산	울산 솔마루길
인천	강화 나들길, 강화 해안도로
제주	제주 올레길
기타	환경부 국토생태탐방로, 산림청 국가숲길, 문화체육관광부 4대강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도보여행과급효과, p.29-30

3. 도보관광여행관련 연구동향

도보관광여행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국내·외 모두 빈약한 편이며 도보여행·걷기여행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으로 용어를 통일하지만, 연구동향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이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개념 정의에 대한 왜곡을 없애고자 한다.

국외의 연구는 주로 탐방로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 정부와 지역사회간의 관계, 도보코스 구조에 대한 연구(Wang, 1997; Murray & Graham, 1997; Cheung, 1999; Chhetri, Arrowsmith & Jackson, 2004; Gu & Ryan 2008) 등으로 탐방객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박시사·노경국, 2010). 국내는 2009년 이후 올레길의 성공과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도보관광여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명숙(2009)은 걷기여행을 슬로우 관광과 관련지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박영아·현용호(2009)는 도보여행의 동기를 심층면접을 통해 자연 친화/체험·자아성취·호기심·자기사색·건강증진/체험·자기정화·사교 등의 동기로 구분하였고, 박시사·노경국(2010)은 양적연구를 통해 도보여행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더 확장하여 일탈·자기성찰·지역체험·위신·자연감상·사교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군집화한 시장세분화를 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국외는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도보관광여행자의 동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실제로 도보관광여행자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를 가져와 관광만족 및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지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할 수 있다.

제 2 절 관광동기의 충족과 관광만족

1. 관광동기의 충족

동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동기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Dann(1981)은 동기(motivation)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mov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동’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시 4가지 측면에서 천착되고 있다.

첫째, 동기는 인간의 행동이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이라는 주장이다(Dann, 1981). 즉 동기는 이동을 유발하는 인간 내적인 심리적·생리적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둘째, 동기는 이동을 유발하는 힘이라는 주장이다. 즉 동기는 쉽게 형성되거나 표현되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또는 계획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며(Dann, 1981), 이러한 힘은 추동력과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Schieffman & Kanuk, 1987; 한정수, 1990; 원서영, 2003)는 것이다.

셋째, 동기는 심리상태라는 주장이다. 동기는 행동의 방향과 힘, 그리고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목표를 향한 행동을 활성화 하고 지시·유도하는 내적 상태이다(장호성, 2008). 그리고 동기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유발되는 관광의사 결정요인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이 관광행동으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에 나타나는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이유라·노경국·박시사·허향진·김태진, 2009).

넷째, 동기는 욕구충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즉 관광의 관점에서 관광동기는 관광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결정행동은 관광동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 의사결정자의 욕구충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광동기이론은 관광행동분석에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김원인, 1994; 김재호, 2011). 여기

서는 관광동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관광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동기는 인간의 행동이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으로서 이동을 유발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상태이고 인간의 욕구충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동기는 여러 측면의 동기 가운데서 관광과 관련된 동기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기가 욕구충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동기가 개인의 행동과 활동을 자극하고, 방향을 결정하며, 통합하는 절대적인 힘을 포함하는 심리적·생물학적 욕구를 반영한다(Dann, 1981; Pearce, 1982; Uysal & Martin, 1993)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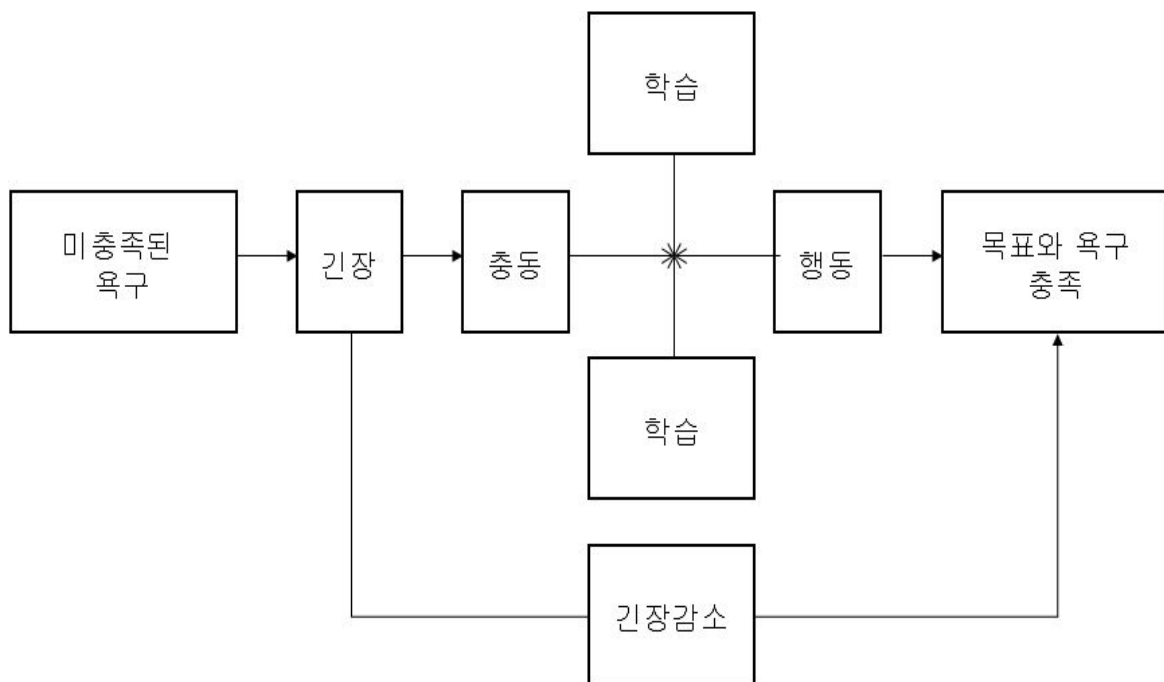
한편, 미충족된 욕구가 긴장을 유발하고 이 긴장은 다시 충동을 야기하며, 이러한 충동은 학습된 행동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충동이 해소되고 긴장이 감소된다(Schieffman & Kanuk, 1987)고 한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3-1]이다. 여기서 보면, 위에서 동기를 힘 또는 심리적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는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임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동기는 이동을 유발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동기는 행동 또는 활동을 선택하기 전단계의 동기이다. 이러한 전단계의 동기가 작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동기유발이라고 하고 있다. 동기유발은 곧 이러한 전단계의 동기가 작동하게 추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동기가 강하다는 것은 이러한 미충족된 관광욕구가 강함을 의미하고, 관광동기가 유발되어 관광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근거에 미충족된 관광욕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동기가 유발되면 즉, 관광욕구를 반영하는 힘 또는 심리상태에 의해 관광활동을 하게 추동되면, 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미충족된 관광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충동이 해소되고 긴장이 감소되어 관광만족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기존의 관광동기를 단순히 행동을 강요하는 추동력으로 보는 추진요인으로서의 관광동기와 활동을 선택하여 체험한 후의 심리상태를 다루는 관광동기로 구분되어야 하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광행동 또는 관광활동을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추동하는 힘을 관광동기라고 하고, 이러한 관광동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것을 관광동기유발이라고 하며, 체험한 후의 심리상태를 다루는 관광동기를 관광동기충족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관광동기충족이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자료 : Leon G. Schiffman & Leslie Lazar Kanuk(1987); 권정택(2000) 재인용

[그림 2-1] 관광동기 유발의 과정

2. 관광만족의 개념

관광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족’에 있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고동우, 1998). 만족이란 뜻의 단어인 ‘Satisfaction’은 영어의 ‘Enough’ 뜻을 가진 라틴어 ‘Satis’와 영어의 ‘to do or make’의 의미인 라틴어 ‘facere’에서 유래되었으며(Oliver, 1993),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소비경험에 대한 구매자의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반응이다. 만족이란 용어가 매우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서비스 또는 관광관련 연구에서는 흔히 욕구와 욕구충족의 결과, 지각된 성과와 규범을 비교한 정도의 결과, 또는 이전 기대나 다른 규범과 소비 후 지각된 실제 성과와의 지각된 차이 평가 등의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박대한, 2001). 또한, 만족 개념은 상용하는 요구(needs)와 동인(motives)의 합치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로 지각되는 것으로서, 요구만족(need satisfaction)은 추진력(drives), 동인(motives), 혹은 요구(needs)에 대한 충족결과로 나타는 것으로 개념화한 것이다(Stankey, 1972; Franken, 1982; 윤동구, 2000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Noe(1987)는 사전 동기 또는 요구의 충족이 곧 만족으로 사전 동기나 요구의 심리적 차원이 만족의 차원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였다.

관광만족이란 인간 행동의 일부 즉 관광경험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이정순, 2004), 따라서 관광만족은 그 대상(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와 관광활동이 관광객 자신의 경험에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관광활동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로 얻어진 지각수준과의 비교·평가에 의해 생긴 주관적인 심리상태이다. 즉 만족은 이전의 기대와 이후의 경험이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결정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상동, 1996). Pizam, Neumann & Reichel(1978)은 관광 중 만족은 관광객이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관광객이 목적지에 방문하여 체험한 후 기대를 비교한 결론으로, 만약 체험 후 느낌과 관광전 기대와 비교하여 만족감이 생기면 여기서 관광객들은 만족감을 느끼며,

체험전후 기대감 비교로 불쾌감을 가지게 되면 관광객은 불만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만족대상이 서비스인지 소비경험인지 혹은 측정 대상에 따라 속성별 측정인지 전체적인 만족 측정인지에 따라 관광자 만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표 2-2> 국외 연구자들의 관광만족에 대한 정의 요약

연구자	관광객 만족 정의
Stankey(1972)	방문객들이 달성한 동기와 목적의 정도를 검토하는 것
Pizam, Neumann & Reichel(1978)	관광목적지에 대한 사전기대와 관광객의 실제 경험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고, 관광객 만족의 구성개념을 여행경험에 있어서 특정영역(관광지 속성)에 대한 관광객 태도의 조합
Dann(1979)	기대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의 감정과 관광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광객이 갖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야기되는 전체적인 심리상태
Iso-Ahola(1980)	참여자로서의 행위의 본질적인 보상에 대한 심리적 혹은 주관적 상태
Lapage(1983)	관광의 생산성을 적절하게 측정한 것
wan Raaij & Francken(1984)	관광만족은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모순이론과 일치이론)
noe(1987)	사전 동기 혹은 요구의 충족
Whipple & Thach(1988)	관광서비스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객의 기대와 지각된 성과간의 차이
Brown(1988)	위락활동에 관여한 것으로부터의 실제 결과의 달성정도. 따라서 위락활동 참여자의 만족은 달성된 욕구 결과 혹은 편익의 정도에 달려 있음
Chon(1990)	관광객의 자아 이미지와 관광목적지 이미지와의 일치정도
Geva, & Goldaman(1991)	선택된 대안이 사전에 갖고 있던 신념과 일치성을 가진다는 평가
Lounsbury & Polik(1992)	관광객이 자신이 관광경험에 대한 총체에 대한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광경험 총체에 대한 일종의 태도
Crompton & Love(1995)	위락이나 관광활동의 참여로부터 나타나는 심리적 결과인 관광객의 경험의 질
Baker & Crompton(2000)	기회에 노출된 후에 생성되는 관광객의 정서적 상태인 경험의 질

자료 : 윤동구(2000), 관광객만족구조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자의 만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으로 인하여 관광만족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화되었는데, 기존 마케팅 연구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다임(expectation-performance discontinuation paradigm)이다. Oliver(1980)가 제시한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다임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관광지를 방문하기 전에 관광행동 성과에 대해서 사전기대를 형성하고, 방문 후 실제성과를 지각하게 되는데 이 양자 간의 차이(gab)가 만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방문 후의 성과가 사전 시대보다 나은 것으로 지각되면 정(正)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만족이 유발되고, 반대로 방문 후 실제성과가 사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지각되면 부(負)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불만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의 한계성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대한 확장 및 수정 노력들이 기울어져 왔고, 이러한 결과로 다양한 소비자만족의 비교 기준들이 제시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한 소비상황과 소비자 만족 형성과정으로 설명하고자 이용되고 있다(Bearden & Teel, 1983; Oliver & Desardo, 1988; Oliver & Swan, 1989a; Westbrook, 1987; Tse & Wilton, 1988; Westbrook & Oliver, 1991, 윤동구 재인용). <표 2-3>는 소비자 만족/불만족의 결정변수와 관련된 주요 비교기준(모형)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또한, 관광만족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전반적 만족’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박창규(1998)는 관광자의 총체적인 만족은 ‘서비스 만족’과 가격·접근성·이용성의 개념을 포괄하는 ‘비용만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Baker와 Crompton(2000)은 ‘전반적인 만족’은 ‘관광경험 후 관광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공급자가 통제할 수 있는 현장의 속성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사회 심리적 상태(요구, 동기, 성향 등)와 관광자 외부적인 변수(날씨,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김재호, 2008).

<표 2-3> 소비자 만족/불만족 모형의 주요 특성

비교 기준	주요 특성
기대불일치 모형	소비자의 구매 이전의 기대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불일치를 가져와 만족과 불만족을 초래
공평성 모형	소비자 만족은 거래에 관련된 고객들이 투입하는 비용과 예상되는 보상에 의해 도출된 공정성에 의해 의존
귀인 모형	소비자들은 다차원적인 스키마를 이용하여 구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하며, 구매 후의 반응은 귀인에 의존
지각된 성과 모형	어떤 제품들은 처음의 기대와 상관없이 지각된 제품성과에 의해 결정
규범 모형	규범이 상표평가의 준거점으로 작용하며 만족의 판단은 이들 규범과 비교한 일치/불일치에 근거
다중적 과정 모형	소비자는 다중적(복수의)기준을 이용하거나 만족에 도달하기까지 연속적 내지 동시에 여러 번의 비교를 거침
감정 모형	만족은 인지적 요소 외에도 감정반응의 함수이다. 긍정적/부정적 감정은 고객만족에 대한 판단과 불평행동,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침

자료 : 정용길(1997), 소비자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관광만족은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의 체험 효과를 통한 다음 효과가 나타나는 고객만족 개념에서 발전해왔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 발전되어지고 있다.

관광객 만족에 대한 초기 연구는 Clawson과 Ketch(1966), Fisher와 Krutilla(1972)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이용밀도와 만족도간에 역관계가 존재한다는 ‘만족도 모형(satisfaction model)’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적인 접근방법은 위락지역 방문을 독립변수(input)로 보고, 이용자 만족도를 종속변수(output)로 보는 것으로서, 방문자 수 증가에 따라 방문자의 전체 만족도는 증가하나 각 개인의 한계 만족도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김사현, 1993; 윤동구, 2000). 1978년 Pizam, Neumann과 Reichel은 관광만족을 목적지에 대한 사전 기대와 관광객의 실제 경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고, 관광객 만족의 구성개념을 여행경험에 있어서 특정영역에 대한

관광객 태도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관광지가 제공하는 7가지 경험요소인 숙박시설·식음·접근성·매력성·비용·쾌적성·환대정신 등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들의 만족정도를 측정하여 관광객의 전체적인 만족이 궁극적으로 각 요소별 만족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관광객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현재까지 애용되고 있다.

Van Raaij과 Francken(1984)은 소비자 만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로 관광만족을 정의했으며,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불일치, 기대 또는 불공정한 공평성이 불만족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기존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은 기대불일치가 만족에 간접적인 효과이외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불일치는 고객만족의 주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Oliver, 1980).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대나 성과가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운중, 2001; 박창규·엄서호, 1998). 특히, 박창규·엄서호(1998)의 테마파크 방문객 만족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활용한 만족관련 연구에 시사한 바가 큰데, 지각된 성과가 만족도에 대해 직·간접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는 간접적인 효과만 충족되었고, 불일치는 전체적인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광동기 충족과 관광만족간의 관계

관광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관광객의 동기요소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광고를 실행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관광객 만족과 재방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에 있어 동기와 만족의 관계와 그 경로는 매우 중요하다(Otto & Ritchie, 1996; 변수녀, 2009 재인용).

관광자 만족 연구의 이론적 기초는 소비자 행동 만족 모델인 동기모델, 쾌락모델, 불일치모델 등의 이론을 연구의 틀로 삼고 있다. 이 중 동기모델은 사

전 동기나 욕구의 심리적 차원이 만족의 차원과 일치한다는 가정아래 사전 동기나 욕구의 충족을 만족과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관광활동을 통해 충족되고 얻어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동기, 관광자의 경험 등을 확인, 비교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다(Noe, 1987). 이를 통해, 관광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만족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Dann, 1981).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자극요인으로 관광대상의 매력으로써 잠재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박영일, 2007), 이를 통해 동기는 만족에, 만족은 재방문의도와 불평행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인석, 2008).

이애주(1988)는 관광지를 선택하는 중요 요인으로 관광자의 선호나 구매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인자의 속성이 관광객의 태도와 상관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관광객의 동기와 지각은 원하는 속성에 따른 지각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 참여동기와 관광만족간의 연구에서 축제 참여동기는 관광만족 및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혜경·손대현, 2008; 류인평, 2011).

윤설민(2007)은 문화관광시장의 유형화 및 세분화를 통해 문화관광지 방문 동기, 경험, 만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관광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올레길이 위치한 제주도 방문객들의 관광동기 유형 및 이미지 연구에서는 일탈 및 매력성 추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동기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 방문시 뚜렷한 관광동기를 보유한 집단은 만족, 재방문 및 추천의사가 높게 나타났다(이승곤·류재숙, 2007).

이와 같이, 관광동기와 관광만족간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주로 관광동기유발과 관광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대다수로 관광동기충족과 관광만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제 3 절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측정

1. 주관적 웰빙의 개념

웰빙, 다시 말해 잘 산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바람이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으며 현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서경현·김정호·유재민, 2009). 웰빙은 가치나 의미,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크게 구분된다(Ryan & Deci, 2001; 김정호 2006). 심리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 중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대변하는 주관적 웰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서경현·김정호·유재민, 2009). 따라서 여행객의 도보관광여행을 통한 관광 만족과 웰빙의 관계를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한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스스로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적 평가 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과 같은 감정과 인지도 평가 정도(Andrews and Withey, 1976)로 개인적 감정에 의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고 있다(김현지, 2007).

일반적으로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은 ‘삶의 질’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 특히 심리학자들은 행복, 생활만족, 정적인 정서 등을 포함하여 ‘주관적 웰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류연지, 1996; 이정순, 2004), 영어의 의미 해석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등으로 표현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웰빙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은 심리학자들 간의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욕구충족(contentment), 기쁨수준(hedonic level)인 전반적 개념과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자긍심(self-esteem), 통제신념(control belief)인 세부적 개념의 두 가지로 구분한 Veenhoven(1991)의 정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이다(이정순, 2004). 전반적

개념 속의 주관적 웰빙은 대체로 정서(affective)요인과 인지(cognitive)요인으로 정의되며(Diener, Larsen, & Griffin, 1985; Andrews & Robinson, 1991; Shmotkin et al., 1998; Ryan & Deci, 2001; Keyes et al., 2002; 이정순, 2004 재인용), 정서요인은 행복감(happiness)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는데(Ryan & Deci, 2001; Keyes et al., 2002; 이정순, 2004 재인용), 개인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혹은 반응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해준다(박중길·유정인, 2008).

Watson(1988)은 생활만족, 정적(pleasant)정서, 부적(unpleasant)정서 등 세 가지 상호관련이 있는 기본요소가 주관적 웰빙을 구성한다고 간주하고 있는데, 삶의 만족은 응답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 생활측면을 인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는 그들이 삶에서 느낀 감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생활만족의 개념을 다룬 연구들은 개인의 욕구/열망과 실제의 성취 간의 비교·평가이며, 삶의 특정조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간에 걸쳐 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박경란, 2009). 삶의 질을 측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Hart, 1999; Higgins & Duxbury, 1992; Kopelman, Greenhaus & Connolly, 1983)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이정순, 2004).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정병은, 2007; 박경란, 2009), 개인이 경험하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는 단일차원의 연속선에서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요소로서 주관적 웰빙과 관계한다. 그러므로 주관적 웰빙은 높은 정적정서와 낮은 부적정서, 그리고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박경혜, 2004).

<표 2-4> 주관적 웰빙의 기본요소

구분	주요 내용
삶의 만족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준거변수이다. Hart(1999)는 직무만족과 직장외 만족을 중개변수로 하고 생활만족을 결과 변수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에 관한 측정변수로 생활만족을 측정하였고, Adams 등(1996)의 연구에서도 생활 만족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측정 변수로 사용되었다.
정적 정서	정적인 정서란, 즐거움, 행복 등과 같은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말한다. 정적인 정서가 높다는 것은 원기가 넘치고, 충분한 집중, 환경과의 유쾌한 상호작용 상태를 말하며, 낮은 정적인 정서는 슬픔과 무기력 상태를 말한다(류연지, 1996). Diener(1984)와 Myers & Diener(1995)는 주관적 웰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만족도 만으로는 전반적 생활을 측정할 수 없으며, 개인에 대한 정서적 측면도 파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적 정서	부적인 정서는 두려움, 분노 같은 불쾌한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부적인 정서는 주관적 혼란과 혐오적인 기분상태를 말하며, 낮은 수준의 부적인 정서는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류연지, 1996). 부적 정서와 정적정서는 비교적 독립적인 관계(Diener & Emmons, 1985)이며, 주관적 웰빙은 개인에 대한 정적 정서 측면과 부적 정서측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Lucas et al, 1996; 차경호, 1999; 김명소 외, 2001; 윤창영, 2001) 한 가지에서 측정변수가 높은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각각 평가되어야 한다.

자료 : 이정순(2004), 관광활동이 관광·여가만족과 웰빙지각에 미치는 영향, 재구성

주관적 웰빙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관련변인을 구명하고자 시도된 이론은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 하향적 접근(up-down approach), 성격적 접근(personality approach), 성취적 접근(telic approach), 판단적 접근(judgemental approach) 등 다섯 가지 측면이며, <표 2-5>와 같이 각각의 접근 모델과 이론, 그리고 특정 구성에서 상이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본입장이 서로 다르다.

<표 2-5> 주관적 웰빙의 다섯 가지 접근이론

구분	주요 내용
상향적 접근 (bottom-up approach)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가 또는 불행한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유쾌함과 고통의 경험을 합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복은 단지 행복한 순간들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의 특징은 삶에 대한 만족감도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재정적 여유와 결혼생활, 주거환경의 만족감에 대한 합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에서의 상향적 접근은 즐거운 활동의 곁여가 불만과 부정정서를 유발한다고 본다.
하향적 접근 (up-down approach)	칸트의 이상론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1980년에 제안(Kozma 등, 1983)되었다. 이 이론의 기본 입장은 상향적 접근의 특성이 주관적 웰빙을 하위요소들의 합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하향식 이론은 주관적 웰빙이 주어진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행복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예를 들어 생활에서의 하향적 접근은 즐거운 활동의 경험도 개인적으로 우울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는 정적정서를 경험하기 힘들다고 본다.
성격적 접근 (personality approach)	Cost와 McCrae(1984)는 행복의 안정성이 두 가지 성향 즉, 외향성과 신경성에 의해 기인된다고 보았다. 외향성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반면에 신경성은 그 반대임을 가정하였다. 이 접근은 상향식 접근법에 속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행복은 정해진 경향보다는 결정적 기능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취적 접근 (telic approach)	McGill(1967)은 성취모델이 행복추구를 여러 방식으로 가능케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행복이 전체적인 바람 정도와 만족된 바람의 함수로 나타난다면 행복은 바람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많은 바람을 만족함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적 접근 (judgemental approach)	행복은 현재 조건과 기준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입장으로 실제 조건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행복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즉, 비교를 위해 과거, 미래, 영감, 욕구를 포함한 복합적 기준이 사용되고 현재가 이를 초과하면 행복을 느낀다(Michalos, 1985).

자료 : 최성애(1988), 노인의 레저 스포츠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재구성

2. 주관적 웰빙관련 연구동향

일부 심리학자들이 1970년대 말에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에 일리노이 대학의 Diener를 위시한 일단의 성격, 사회, 임상 측정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

작했다. 즉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생활만족도가 심리학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심리학자들은 이 지표를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이란 제목 하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이훈구, 1997).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 연구는 관광학을 비롯한 심리학 등 인문사회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관광학에서는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측정방법 등 관광학에서의 주관적 웰빙 이론 확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관광활동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김병국(2009)은 여가지각과 주관적 웰빙의 개념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인지요인과 사회적 외부 인지요인이 여가지각과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여 여가지각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정순(2004)은 그의 연구에서 관광활동경험을 통한 관광·여가 만족과 웰빙지각의 관계를 연구하여 심리적 웰빙이 주관적 웰빙의 선행변수임을 밝히고, 웰빙의 매개변수로서 관광만족·여가만족을 검증하였고 이 후, 이정순·전원배(2005)는 여가만족이 주관적 웰빙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김현지(2007)는 헬스투어 참가여부에 따른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을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헬스투어 참가여부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에 따른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 등 인문사회학에서는 주관적 웰빙의 개념정립과 척도 측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주제로 한 연구, 성격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정호·유제민·서경현·임성건·김선주·김미리혜·공수자·강태영·이지선·황정은(2009)의 주관적 웰빙을 변수 중 하나인 삶의 만족을 삶의 동기, 삶의 만족, 삶의 기대로 구분하여 주관적 웰빙 측정방법을 보완하는 연구에서 삶의 만족이 주요한 예측변인이고, 삶의 기대가 추가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Diener(1995)는 사회적 자원과 주관적 행복감으로서의 생활만족은 정적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이 가진 목표와 자원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발표하였다. 류연지(1996)는 욕구충족이 높은 집단일수록 · 외형적일수록 ·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서경현 · 김정호 · 유제민 등(2009)은 기질적 차원의 성격이 주관적 웰빙을 통해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성격이 개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박경란(2009)은 50~60세를 예비노년층으로 설정하여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만족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체육학에서는 활동여가 및 스포츠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참여 동기에 따른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 등을 연결하고 있다. Brook과 Elliot(1971)은 스포츠와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기만족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주로 수동적 여가활동을 한 사람에 비해 심리적 복지와 적응력이 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박중길 · 유정인(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동기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내외적 동기와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운동참여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운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정적 정서와 정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운동 강도를 높게 자각할수록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동기가 주관적 웰빙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2006)은 요가의 참가정도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검토하여 요가수련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몰입경험이 클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고, 자아정체감이 강할수록 주관적 웰빙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와 같이 관광 및 여가만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 고찰, 주관적 웰빙의 개념 규정 등 주관적 웰빙의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의 비중이 구체적인 관광활동을 통해 주관적 웰빙을 통해 주관적 웰빙을 규명하는 연구보다 다소 많다. 최근 명상관광 · 도보관광 · 모험관광 등 관광과 스포츠,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관광활동과 주관적 웰빙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실제적인 관광활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중 하나임을 밝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 관광활동 중 하나인 도보관광여행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3 주관적 웰빙의 측정

주관적 웰빙은 주관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Diener & Lucas, 1999;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김정호 외 2009)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웰빙에 대한 통합적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표준적인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다(Myers & Diener, 1995). 그 중 Diener 등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와 정서균형(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척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삶의 만족 척도 5개 문항은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정서 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자의 측정척도를 사용되고 있다(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웰빙을 심리적 웰빙이란 개념과 측정도구로 대체(Ryff, 1989)하거나, ‘행복’이란 척도로 주관적 웰빙을 새롭게 측정하려고 시도(Hills & Argyle, 2002; Kashdan, 200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은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삶의 질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박병기·홍승표, 2004).

김정호(2009) 등은 주관적 웰빙의 측정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Diener 등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정적정서·부적정서 등 주관적 웰빙의 척도 외에 삶의 동기척도·기대척도 등을 포함하여 주관적 웰빙 척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 요소(삶의 만족)와 정서적 요소(정적정서, 부정적정서)가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분되면서 개별적으로 측정되었을 때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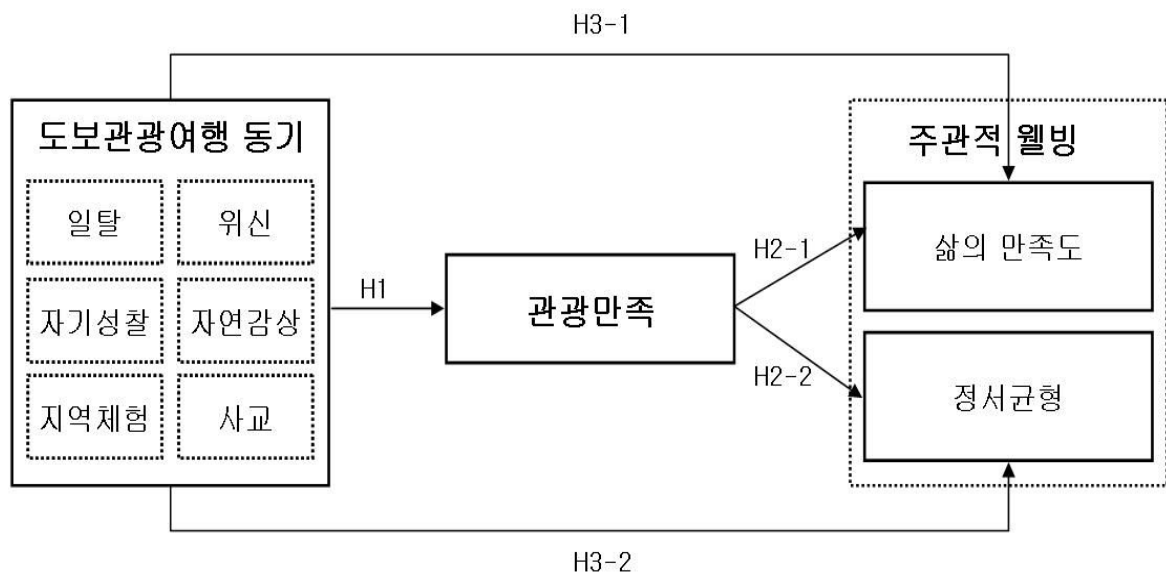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과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도보관광여행의 충족된 동기가 관광만족과 궁극적으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은 여호근·김대환·손일화(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보관광여행 동기,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3개 변수 사이의 구조적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연구의 가설

Dann(1981)은 관광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관광만족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Otto와 Ritchie(1996)는 관광동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관광만족과 재방문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정순·전원배(2005)는 만족이 주관적 웰빙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반면, 김현지(2007)는 관광만족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여 이에 대한 인과적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앞서 설계한 연구모델에 근거하여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도보관광여행,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간의 관련성이다. 연구의 가설은 총 5개이며 이 중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관광만족 간의 관계가 1개 가설(H1),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가 2개 가설(H2-1, H2-2),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2개 가설(H3-1, H3-2)로 설정하였다.

H 1.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관광만족은 높다.

H 2. 관광만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은 높다

2-1. 관광만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는 높다.

2-2. 관광만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은 높다.

H 3.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은 높다.

3-1.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는 높다.

3-2.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은 높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보관광여행

유사한 의미이나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들을 통일하여 사용하기 위해, ‘도보’라는 순수 및 검목적성을 가진 관광여행인 ‘도보관광여행’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도보관광여행은 도보 중심의 탐방로를 걸으며,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역사를 이해하고 사색과 명상을 통해 새로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여행이라 할 수 있다.

2. 관광동기의 충족

관광동기는 관광활동을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추동하는 힘으로, 관광동기의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것을 관광동기유발이라고 하며, 체험한 후의 심리상태를 관광동기충족으로 포함하여 정의한다.

도보관광여행자의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의 영향 측정을 위해서 도보관광여행자의 관광동기를 관광동기충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박시사·노경국(2010)은 도보관광여행의 동기를 크게 일탈·자기성찰·지역체험·위신·자연감상·사교 등으로 구분하였다. 측정도구는 박시사·노경국(2010)의 도보관광여행 동기 측정에 활용한 28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관광동기충족 측정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하였다. ~했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3. 관광만족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방문하여 체험한 기대를 비교한 결론으로, 체험 후 느낌과 기대를 비교하여 만족감이 생기면 만족을 느끼며, 체험전후 기대감 비교로 불쾌감을 가지면 불만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광만족을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도보관광여행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 또는 도보관광여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 정의하고자 한다. 측정도구로는 김재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주관적 웰빙

인간은 생리적 또는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해한다. 따라서 욕구를 충족한 사람은 주관적 웰빙이 높아지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 적은 부정적정서, 많은 정적정서를 경험하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을 삶의 만족감과 함께 행복·기쁨 등의 정적 정서와 두려움·화남 등의 부정적정서가 혼재되어있는 정서균형 상태라고 규정한다.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정서균형의 2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김병국(2009)의 연구에서 활용한 Diener et al.(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Larsen 과 Diener(1992)의 정서균형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 5문항, 정서균형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기위한 문항 7개, 도보관광여행 참여행태를 알기 위한 문항 5개를 포함, 도보관광여행 28개, 관광만족 3개, 주관적 웰빙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도보관광여행 참여행태의 측정 척도는 명목·비율 척도를 사용하였고, 도보관광여행과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에 관련한 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아니다”를 2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3-1> 설문 구성 내용

구성영역	구성내용		문항 수	척도 유형
도보 관광 여행 동기	충족된 도보관광여행 참여동기		28문항	5점 Likert 척도
	일탈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 반복되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기분을 전환했다. 혼잡한 곳에서 벗어났다. 휴식을 취했다. 평온함과 한적함을 느꼈다.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현재 상황을 탈출했다.		
	자기성찰	나의 가치를 생각했다. 자신감을 얻었다.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자기계발을 했다. 성취감을 느꼈다.		
	지역체험	제주만의 문화 및 예술을 체험했다.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익혔다.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의 전통 의식주를 체험했다.		

<표 계속>

구성영역	구성내용		문항 수	척도 유형
도보 관광 여행 동기	위신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주변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았다. 나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생활을 했다	28문항	5점 Likert 척도
	자연감상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감상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제주도의 경관을 감상했다. 자연을 가까이 느꼈다.		
	사교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했다.		
관광만족	도보관광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만족도		3문항	5점 Likert 척도
	도보관광여행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올레길 걷기에 만족한다. 도보관광여행을 선택한 것에 만족한다.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정서균형		11문항	5점 Likert 척도
	삶의 만족	대체적으로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나의 삶에 만족한다.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다시 산다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살겠다.		
		정서균형		
도보관광 참여형태	횟수, 경력, 참여시간, 지속 참여의사, 동반인원		5문항	명목, 비율 척도
사회·인구 통계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유무, 경제만족, 거주지		7문항	명목, 비율 척도
< 총 54 문항>				

2. 표본의 선정방법

제주 올레길은 2009년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며 제주도의 기타 관광지들보다 더욱 각광받고 있는 제주도 관광의 새로운 대표 자원이다.

제주 올레길은 2007년 개발이 시작되어 2011년 현재 총 24개의 탐방 루트(본 루트 19, 알파 루트 5)를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전역에 100여개 도보관광여행 코스 조성 및 도보관광여행 열풍의 시발점이자 대표 지역이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서귀포시의 추산에 따르면 2007년 올레길을 찾은 관광객은 3천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 3만여 명이 올레길 걷기에 동참했고 특히, 2009년 말부터 입소문이나 방송을 통해 올레길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한 제주 전문 여행사가 제주도의 다른 관광지는 포함하지 않고 올레길 2대 루트만으로 짜여있는, 제주 올레길 2박 3일 코스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한국경제, 2009).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0년에 발표된 ‘걷는 길의 가치를 높인 제주 올레보전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10년에 올레길 탐방객을 약 45만 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5년 17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보관광여행의 대표 지역인 ‘제주 올레길’을 도보관광여행 탐방객의 주관적 웰빙 측정의 적합지로 판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의 제주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도보관광여행 관광동기충족과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제주 올레길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원을 활용하여 제주 올레길 탐방객에게 준비한 설문지에 자기기

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장소는 제주 올레길 24개 루트 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7루트²⁾를 중심으로 7, 8, 9 10루트에서 4명의 설문조사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하나인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통하여 추출하였고, 총 40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율은 100%였으나 응답의 성실성·분석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47부를 제외하고 총 353매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최종 설문을 통해 얻은 유효 표본으로부터 가설 및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고, 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보관광여행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인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도보관광여행 탐방객들의 응답이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 영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이 끝난 측정척도들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및 적합도 등 인과관계 분석과 각 변수들 간의 직·간접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도보관광여행참여 행태에 따른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정서균형)의 차이분석을 위해 T-Test 및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제주관광공사(2010), 제주 올레길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 1 절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제주 올레길을 탐방하는 만 18세 이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400부의 설문 응답지를 획득하였고 이중 353매의 유효 표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에 앞서 353매의 유효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153명(43.3%), 여성 200(56.7%)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17명(4.8%), 20대 102명(28.8%), 30대 76명(21.5%), 40대 93명(26.4%), 50대 59명(16.6%), 60대 6명(1.7%)으로 조사되어 만 18세 이상 설문 조사로 10대의 비중이 적은 대신 나머지 연령대인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연령대는 비슷한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40.3세로 분석되었다.

학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 재학 및 졸업이 229명(64.9%)으로 과반수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고졸이하 92명(26.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8명(7.9%), 중졸이하 4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 40명(11.3%), 사무·행정·관리직 78명(22.1%), 자영업 64명(18.1%), 기술직 24명(6.8%), 주부 58명(16.4%), 학생 74명(21.0%), 기타 15명(4.2%)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기혼 194명(55.0%), 미혼 159명(45.0%)으로 나타났고, 소득만족은 매우 만족한다 22명(6.2%), 만족한다 113명(32.0%), 보통이다 148명(41.9%), 아니다 60명(17.0%), 전혀 아니다 10명(2.8%)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전체적인 소득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70명(19.8%), 부산광역시 26명(7.4%), 인천광역시 18명(5.1%), 대전광역시 10명 2.8%), 광주광역시 12명 3.4%), 대구광역시 6명(1.7%), 경기도 73명 20.7%), 강원도 3명(0.8%), 충청도 12명(3.4%), 전라도 19명 5.4%), 경상도 26명(7.4%), 제주도 77명(21.8%)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수 (명)	비율 (%)	구분		빈도수 (명)	비율 (%)	
성별	남성	153	43.3	결혼	기혼	194	55.0	
	여성	200	56.7		미혼	159	45.0	
연령	10대	17	4.8	소득 만족	전혀 아니다	10	2.8	
	20대	102	28.8		아니다	60	17.0	
	30대	76	21.5		보통이다	148	41.9	
	40대	93	26.4		만족한다	113	32.0	
	50대	59	16.6		매우 만족한다	22	6.2	
	60대	6	1.7		거주지	서울특별시	70	19.8
학력	중졸이하	4	1.1	부산광역시		26	7.4	
	고졸이하	92	26.1	인천광역시		18	5.1	
	대학재학 및 졸업	229	64.9	대전광역시		10	2.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8	7.9	광주광역시		12	3.4	
직업	전문직	40	11.3	대구광역시		6	1.7	
	사무·행정·관리직	78	22.1	울산광역시		-	-	
	자영업	64	18.1	경기도		73	20.7	
	기술직	24	6.8	강원도		3	0.8	
	주부	58	16.4	충청도		12	3.4	
	학생	74	21.0	전라도		19	5.4	
	기타	15	4.2	경상도		26	7.4	
				제주도		77	21.8	
n						353	100	

2. 도보관광여행 참여행태에 관한 사항

도보관광여행은 건기의 효용성이 삶의 웰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8년 이후 도보관광여행 코스가 많아지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관광행태 중 하나로 그 행태적 특성을 정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에 따른 보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 올레길 도보관광여행의 탐방객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보관광여행 탐방객의 참여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보관광여행 참여횟수, 도보관광여행 경력,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시간, 지속 참여의향, 동반인원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도보관광여행의 참여 횟수는 이번이 처음 105명(29.7%), 2~3회 118명(33.4%), 4~5회 71명(20.1%), 6~7회 20명(5.7%), 8회 이상 39명(11.0%) 나타났다. 경력은 3개월 미만 134명(38.0%), 3~6개월 미만 39명(11.0%), 6~12개월 미만 49명(13.0%), 1년~2년 미만 64명(18.1%), 2년 이상 67명(19.0%)으로 나타났다. 도보관광여행의 참여 횟수와 경력을 살펴보면 3회 이하와 6개월 미만의 비율이 높아 아직까진 도보관광여행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보관광여행의 지속 참여의향은 전혀없다 3명(0.8%), 없다 13명 (3.7%), 보통이다 49명(13.9%), 있다 180명(51.0%), 매우 있다 108명(30.6%)로 80%이상이 도보관광여행의 지속 참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보관광여행이 등산과 같이 하나의 생활여가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제주 올레길 도보관광여행 탐방기간은 만나절 71명(20.1%), 하루 99명(28.0%), 1박 2일 82명(23.2%), 2박 3일 77명(21.8%), 그 이상 24명(6.8%)으로 만나절에서 3일내로 도보관광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이 높지 않은 섬이라는 제주도 관광의 특성과 다양한 문화테마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레길 탐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제주 올레길이 제주도 관광자원 중 높은 방문 고려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반인원은 혼자 10명(2.8%), 2인 60명(17.0%), 3~4인 148명(41.9%), 5~10인 113명(32.0%), 10인 이상 22명(6.2%)으로 4인 이하의 동반인원 비중이 5인 이상 단체 탐방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응답자의 도보관광여행 참여행태별 특성

구분		빈도수 (명)	비율 (%)	구분		빈도수 (명)	비율 (%)
횟수	이번이 처음	105	29.7	시간	2박 3일	77	21.8
	2~3회	118	33.4		그 이상	24	6.8
	4~5회	71	20.1	지속 참여 의향	전혀 없다	3	0.8
	6~7회	20	5.7		없다	13	3.7
	8회 이상	39	11.0		보통이다	49	13.9
경력	3개월 미만	134	38.0		있다	180	51.0
	3~6개월 미만	39	11.0		매우 있다	108	30.6
	6~12개월 미만	49	13.9	동반 인원	혼자	10	2.8
	1년~2년 미만	64	18.1		2인	60	17.0
	2년 이상	67	19.0		3~4인	148	41.9
시간	반나절	71	20.1		5~10인	113	32.0
	하루	99	28.0		10인 이상	22	6.2
	1박 2일	82	23.2	n		353	100

제 2 절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측정척도 검증 방법

1)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서로 비교가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 정도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신뢰도는 일관성(consistency), 안정성(stability), 정확성(accura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란 개념과도 유사하며 측정치의 ‘분산정도’란 말과도 비슷한 개념이다(김사현, 2007).

이러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반분법(split-half method),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복수양식법(multiple-forms method)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내적일관성분석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내적일관성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개의 항목을 측정한 후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하나의 측정변수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반복신뢰도의 평균치를 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단을 측정대상으로 할 때는 α 계수가 0.6이상, 개인을 측정대상으로 할 때는 0.8이상 일 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김사현, 2007).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분석법을 활용하여 도보관광여행,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각각 측정하였고,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항목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제거하지 않았다.

2) 타당성 검증

요인분석은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되는 분석법으로 연구 분석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로 나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을 의미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기존관계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인과관계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이용되며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잠재변수와 그것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는 선행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확인적 요인분석은 선행이론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데 이용된다(김재호, 2008).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선행연구들에서 이용한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AMOS 18.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적합성 검증은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사용하여 검증 하였는데, 절대적합지수는 연구모형이 입력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가장 대표적인 절대적합지수기준인 χ^2 를 포함하여 GFI, AGFI, RMR, RMSEA 등이 있으며, 증분적합지수는 모든 측정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로 NFI, CFI, TLI의 값으로 평가한다.

측정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고 해석되는 χ^2 , CMIN/DF, GFI, AGFI, CFI, NFI, IFI, RMR, RMSEA 값을 사용하였다.

<표 4-3> 모형의 적합도 기준

구분	적합지수	최적모형
절대적합지수	$\chi^2(P) = \text{CMIN}/p$ 값	계산된 χ^2 값과 임계치를 비교 / $P > .05$
	CMIN/DF	2이하
	GFI(기초적합지수)	0.9이상
	AGFI(수정적합지수)	0.9이상
	RMR(원소간평균차이)	0.05이하
	RMSEA(근사오차평균제곱)	0.05~0.08 이하
증분적합지수	NFI(표준적합지수)	0.9이상
	IFI(증대적합지수)	0.9이상
	CFI(비교적합지수)	0.9이상

자료 : 이학식·임지훈(2011) 의거 재구성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연구자의 모형(가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적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적합도를 높이거나 항목을 제거하는 시도는 모형의 규격(specification)을 저해하게 되어 모형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연구자체의 설득력을 잃게 된다(이학식·임지훈, 2011).

본 연구의 목적이 측정척도의 개발이 아닌 각 측정변수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측정항목간 관계를 분석하여 적합도를 저해하는 측정항목을 수정지수 검토를 통해 제거하고 연구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측정척도 검증

1) 도보관광여행 동기

도보관광여행 동기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표 4-4>과 같이 전체 Cronbach's α 값이 0.877로 0.6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므로 항목들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4> 도보관광여행 동기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설문문항			항목- 총점 상관관계	항목제거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도보 관광 여행	일탈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	.582	.887	.894	
		반복되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613	.885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688	.880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737	.876		
		기분을 전환했다.	.701	.880		
		혼잡한 곳에서 벗어났다.	.641	.883		
		휴식을 취했다.	.649	.882		
		평온함과 한적함을 느꼈다.	.613	.885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539	.892		
		현재 상황을 탈출했다.	.657	.882		
	자기 성찰	나의 가치를 생각했다.	.534	.763	.791	
		자신감을 얻었다.	.615	.737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679	.716		
		자기계발을 했다.	.541	.762		
		성취감을 느꼈다.	.489	.778		
	지역 체험	제주만의 문화 및 예술을 체험했다.	.700	.874	.887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익혔다.		.811	.831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800	.836			
제주의 전통 의식주를 체험했다.		.710	.873			
위신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377	.687	.648		
	주변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았다.	.521	.472			
	나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생활을 했다.	.499	.503			
	자연 감상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감상했다.	.546	.867	.844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774	.765		
		제주도의 경관을 감상했다.	.749	.774		
		자연을 가까이 느꼈다.	.680	.803		
	사교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890	-	.941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했다.	.890	-		
		전체 Cronbach's α				.877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요인별로 각각의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일탈은 0.894, 자기성찰은 0.791, 지역체험은 0.887, 위신은 0.648, 자연감상은 0.844, 사교는 0.941로 모두 신뢰도 판단기준인 0.6보다 높아 도보관광여행 동기 측정항목별로도 신뢰도를 갖는다.

도보관광여행 동기는 일탈,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 사교로 구성된다. 구성개념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 GFI, AGFI, CFI, NFI, IFI, RMR, RMSEA 값을 사용하였다.

도보관광여행 동기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5>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모형의 적합도 기준에 적용해 보면, RMR, RMSEA 값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에서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보관광여행 동기 각 측정문항간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5> 도보관광여행 동기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MIN/p값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RMSEA
991.628/.000	2.960	.046	.822	.785	.871	.819	.873	.075
p>0.5	2이하	0.05이하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0.05~0.08
×	×	○	△	×	△	×	△	○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4이하의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SMC는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표 4-6> 도보관광여행 동기 항목의 SMC 값

구분	항목									
일탈	생활활력	일상탈피	삶의여유	스트레스	기분전환	혼잡탈피	휴식	평온	혼자시간	상황탈출
SMC값	.420	.446	.551	.649	.594	.463	.449	.388	.311	.448
자기성찰	가치	자신감	자기성찰	자기계발	성취감	-	-	-	-	-
SMC값	.349	.515	.606	.356	.375	-	-	-	-	-
지역체험	문화예술	역사전통	문화이해	전통의식주	-	-	-	-	-	-
SMC값	.561	.747	.765	.608	-	-	-	-	-	-
위신	리더십	자신감	지위	-	-	-	-	-	-	-
SMC값	.520	.295	.283	-	-	-	-	-	-	-
자연감상	청정자연	아름다움	경관	근접자연	-	-	-	-	-	-
SMC값	.351	.685	.748	.632	-	-	-	-	-	-
사교	즐거움시간	친목도모	-	-	-	-	-	-	-	-
SMC값	.832	.952	-	-	-	-	-	-	-	-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인과계수(regression weights)를 살펴보면 <표 4-7>, [그림4-1]과 같이 각 항목간에는 유의확률이 유의하지 못하나, 항목간 하위변수들과의 인과계수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교 항목의 경우 다른 항목들과의 인과계수가 모두 부(-)의 값이 나타나 측정척도로써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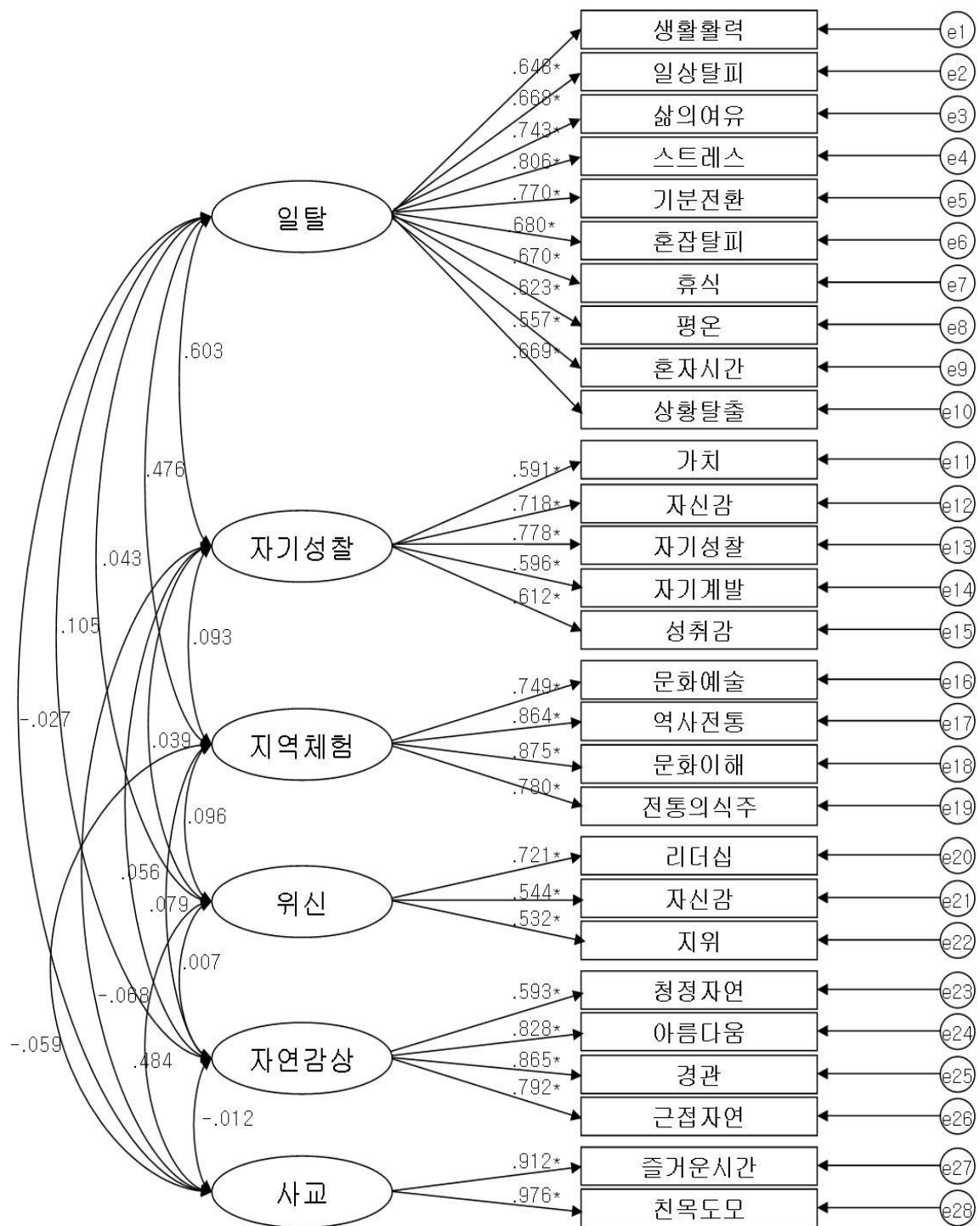
<표 4-7> 도보관광여행 동기 항목의 상관관계

구분	표준화된 상관계수	S.E.	C.R.
일탈 ↔ 자기성찰	.603	.019	6.531***
일탈 ↔ 지역체험	.476	.021	6.396***
일탈 ↔ 위신	.130	.023	1.850
일탈 ↔ 자연감상	.570	.016	6.530***
일탈 ↔ 사고	-.055	.028	-.960
자기성찰 ↔ 지역체험	.335	.020	4.678***
자기성찰 ↔ 위신	.122	.024	1.646
자기성찰 ↔ 자연감상	.315	.013	4.282***
자기성찰 ↔ 사고	-.142	.030	-2.290*
지역체험 ↔ 위신	.214	.032	2.981**
지역체험 ↔ 자연감상	.316	.017	4.633***
지역체험 ↔ 사고	-.088	.039	-1.529
위신 ↔ 자연감상	.023	.020	.330
위신 ↔ 사고	.631	.065	7.503***
자연감상 ↔ 사고	-.028	.025	-.489

주: *는 $p < .05$ 값이다

**는 $p < .01$ 값이다.

***는 $p < .001$ 값이다.



주 : *는 $p < 0.05$ 값이다.

[그림 4-1]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나타난 인과계수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검증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측정항목간 수정지수 검토를 통해 하위변수들 중 적합도가 낮은 항목과 인과계수에서 다른 항목들과 모두 부(-)의 값이 나타난 사고요인을 <표 4-8>과 같이 제거하였다.

사고를 제외한 일탈,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 등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측정 항목들을 단일항목으로 변환하여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에 적용하였다.

<표 4-8>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도보관광여행 동기 측정 항목 제거

측정항목			활용	제거
일탈	생활활력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	○	
	일상탈피	반복되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
	삶의여유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	
	기분전환	기분을 전환했다.		○
	혼잡탈피	혼잡한 곳에서 벗어났다.	○	
	휴식	휴식을 취했다.	○	
	평온	평온함과 한적함을 느꼈다.		○
	혼자만의시간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
	상황탈출	현재 상황을 탈출했다.	○	
자기성찰	가치	나의 가치를 생각했다.	○	
	자신감	자신감을 얻었다.	○	
	자기성찰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	
	자기계발	자기계발을 했다.	○	
	성취감	성취감을 느꼈다.	○	
지역체험	문화예술	제주만의 문화 및 예술을 체험했다.	○	
	역사전통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익혔다.	○	
	문화이해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통의식주	제주의 전통 의식주를 체험했다.	○	
위신	리더십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	
	자신감	주변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았다.	○	
	지위	나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생활을 했다.		
자연감상	청정자연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감상했다.		○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	
	경관	제주도의 경관을 감상했다.	○	
	근접자연	자연을 가까이 느꼈다.	○	
사고	즐거움시간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친목도모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했다.		○

2) 관광만족

관광만족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9>과 같다. 전체 Cronbach's α 값이 0.839로 0.6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 항목들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항목 제거시의 Cronbach's α 값은 낮아져 각 관광만족 측정항목 모두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표 4-9> 관광만족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설문문항		항목- 총점 상관관계	항목제거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관광 만족	도보관광여행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705	.775	.839
	올레길 걷기에 만족한다.	.725	.755	
	도보관광여행을 선택한 것에 만족한다.	.681	.800	
	전체 Cronbach's α			.839

관광만족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0>와 같이 GFI=1.000인 포화모형으로 나타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MSEA를 제외한 RMR, AGF, CFI, NFI, IFI 등의 적합도 기준 역시 모두 높은 적합도를 관광만족 항목은 측정항목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0> 관광만족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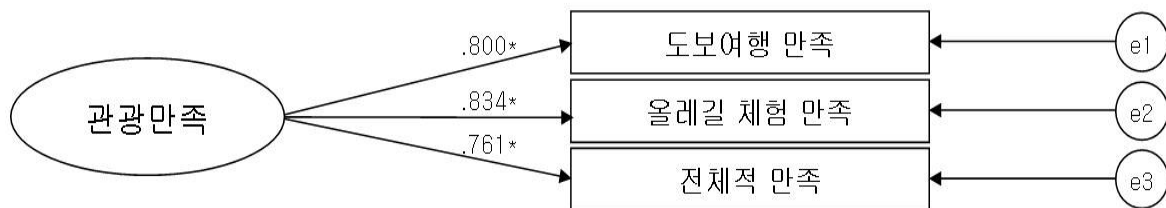
RMR	GFI	AGFI	CFI	NFI	IFI	RMSEA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34
0.05이하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0.05~0.08
○	○	○	○	○	○	×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인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표 4-11>에 제시하였다. 모두 SMC 값의 기준이 되는 0.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1> 관광만족 항목의 SMC 값

구분	도보여행 만족	올레길 체험 만족	전체적 만족
SMC 값	.579	.695	.641

관광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인과계수(regression weights)를 살펴보면 모두 유의확률 0.05 이하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과계수 값은 [그림 4-2]와 같다.



주 : *는 $p < 0.05$ 값이다.

[그림 4-2] 관광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나타난 인과계수

3)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Cronbach's α 값은 0.712로 0.6보다 높아 문항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요인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균형 두 요인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의 Cronbach's α 값은 0.871, 정서균형의 Cronbach's α 값은 0.481로 정서균형의 신뢰도가 0.6이하로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정서균형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는 설문지 구성시 정서균형의 측정항목이 마지막에 구성되어 다수의 설문문항 응답에 따른 응답자의 무의식적인 응답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경향성을 고려한 설문 구성으로 정서균형의 신뢰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

나, 항목과 총점간 상관관계 값이 모두 0.30이상이며, 전체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의 신뢰도는 0.6이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 할 수 있다.

<표 4-12>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설문문항			항목- 총점 상관관계	항목제거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대체적으로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	.728	.838	.871
		나의 삶에 만족한다.	.722	.839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667	.851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709	.841	
		다시 산다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살겠다.	.677	.852	
	정서 균형	지금 즐겁다.	.315	.395	.481
		지금 유쾌하다.	.285	.411	
		지금 기분이 좋다.	.202	.457	
		지금 불쾌하다.	.211	.452	
		지금 낙담하고 있다.	.201	.457	
		지금 우울하다.	.236	.439	
	전체 Cronbach's α				.712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 정서균형으로 구성된다. 구성개념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 GFI, AGFI, CFI, NFI, IFI, RMR, RMSEA 값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웰빙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모형의 적합도 기준에 적용해 보면, 모든 기준에서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관적 웰빙 각 측정문항간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13> 주관적 웰빙 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CMIN/p값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RMSEA
791.592/.000	18.409	.066	.719	.568	.709	.699	.711	.222
p>0.5	2이하	0.05이하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0.05~0.08
×	×	×	×	×	×	×	×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은 <표 4-14>와 같다. 전체항목 중 삶의 만족도 및 정서균형 중 정적정서의 SMC 값은 0.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정서균형 중 부적정서를 나타내는 우울하다, 낙담하다, 불쾌하다 항목이 0.4 이하로 나타났다.

<표 4-14> 주관적 웰빙 항목의 SMC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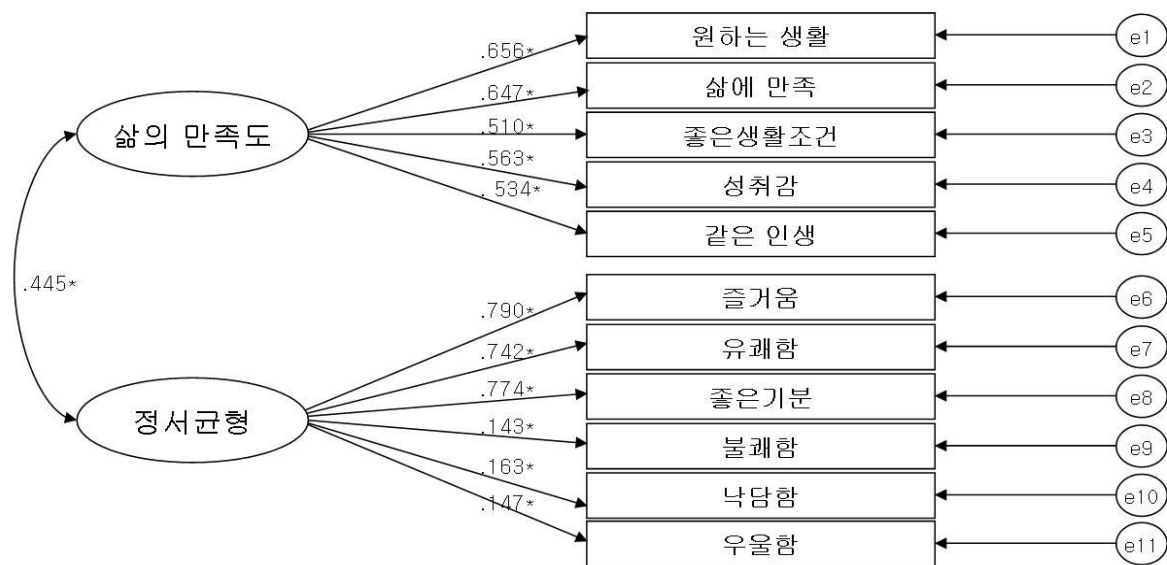
구분	항목					
삶의 만족도	원하는 생활	삶에 만족	좋은생활조건	성취감	같은 인생	-
SMC값	.656	.647	.510	.563	.534	.-
정서균형	즐겁다	유쾌하다	기분이좋다	불쾌하다	낙담하다	우울하다
SMC값	.790	.742	.774	.143	.163	.147

주관적 웰빙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인과계수(regression weights)를 살펴보면 <표 4-15>, [그림 4-3]과 같이 각 항목간 유의확률이 0.05 수준에서 유의하며, 항목간 하위변수들의 인과계수 역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주관적 웰빙 항목의 상관계수

구분	표준화된 상관계수	S.E.	C.R.
삶의 만족도 ↔ 정서균형	.445	.024	6.679***

***. 상관계수는 0.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주 : *는 $p < 0.05$ 값이다.

[그림 4-3] 주관적 웰빙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나타난 인과계수

본 연구모형의 검증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 검토를 통해 하위변수들 중 적합도가 낮은 항목을 <표 4-16>과 같이 제거하였다.

그런 후, 주관적 웰빙의 삶의 만족과 정서균형 항목을 단일항목으로 변환하여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에 적용하였다.

<표 4-16>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 제거

측정항목			활용	제거
삶의 만족	원하는 생활	대체적으로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	○	
	삶에 만족	나의 삶에 만족한다.	○	
	좋은생활조건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	
	성취감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	
	같은인생	다시 산다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살겠다.	○	
정서균형	즐거움	지금 즐겁다.	○	
	유쾌함	지금 유쾌하다.	○	
	좋은기분	지금 기분이 좋다.	○	
	불쾌함	지금 불쾌하다.	○	
	낙담함	지금 낙담하고 있다.		○
	우울함	지금 우울하다.		○

제 3 절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가설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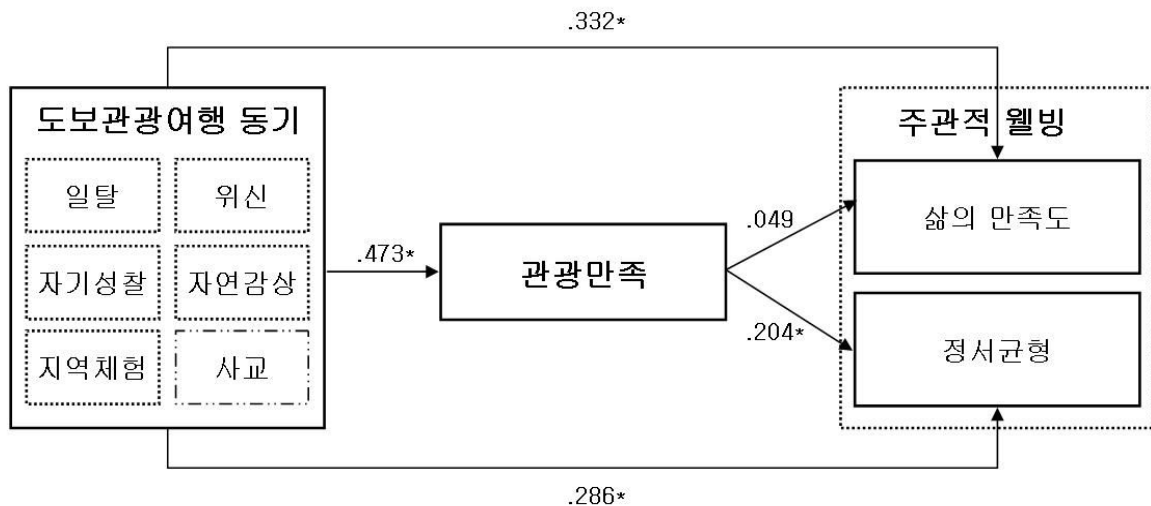
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대개의 경우 각 구조요인(construct)은 다항목으로 측정되고, 그 값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다항목으로 측정한 값을 단일항목 값으로 변환하거나 원래 단일항목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이학식·임지훈, 2011).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한 각 도보관광여행,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각 변수의 평균값을 공분산 행렬로 변환하였고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탈,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 사교로 구성되는 도보관광여행을 전체 단일항목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관광만족은 단일항목으로, 주관적 웰빙은 본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와 정서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그림 4-4]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에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ices)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간결적합지수(parsimony fit indice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로는 χ^2 값과 p값, GFI(기초적합지수), AGFI(수정적합지수), RMR(원소간평균차이), CFI(비교적합지수), RMSEA(근사오차평균제곱근)를 사용하였고, 기초모형과 모든 측정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가정한 제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로는 NFI(비교적합지수)와 IFI(증대적합지수)를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7>에서의 적합도 기준을 근거로 다음과 같다. 절대적합지수의 기준인 χ^2 값과 p값이 각각 20.469, .000,

GFI=.973, AGFI=.727, RMR=.019, RMSEA=.235로 나타났다. 또한, 증분적합지수는 NFI=.910, IFI=.914, CFI=.912로 나타나 절대적합지수의 χ^2 값과 p값, CMIN/DF, AGFI, RMSEA를 제외하고 모든 기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일반적으로 적합도 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로 판단할 때, 수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 *는 $p < .05$ 값이다

[그림 4-4] 연구모형 검증결과

<표 4-17>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준 및 결과

구분	분석결과	적합도 기준값	적합여부
GFI(기초적합지수)	.973	0.9 이상	적합
RMR(원소간평균차이)	.019	0.05 이하	
NFI(표준적합지수)	.910	0.9 이상	
IFI(증대적합지수)	.914	0.9 이상	
CFI(비교적합지수)	.912	0.9 이상	
$\chi^2(P) = \text{CMIN}/p$ 값	20.469/000	$p > .05$	부적합
CMIN/DF	20.469	2 이하	
AGFI(수정적합지수)	.727	0.9 이상	
RMSEA(근사오차평균제곱)	.235	0.1 이하	

<표 4-18>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S.E.	C.R.
도보관광여행 동기 → 관광만족	.510	.473	.050	10.093*
관광만족 → 삶의 만족	.074	.049	.085	.870
관광만족 → 정서균형	.213	.204	.057	3.739*
도보관광여행 동기 → 삶의 만족	.538	.332	.091	5.895*
도보관광여행 동기 → 정서균형	.321	.286	.061	5.233*

주: *는 $p < .05$ 값이다

2.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관광만족 간의 관계

충족된 도보관광여행 동기 정도가 관광만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도보관광여행의 경로계수는 0.510이며 p값은 0.05보다 낮아 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 올레길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제주도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게 된 하나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도보관광여행 탐방객 유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도보 탐방코스 조성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 동기를 ‘일탈’,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도보관광여행의 동기가 전반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전제하여 단일항목의 관광만족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각 측정항목에 따른 관광만족과의 유의한 영향력 검증을 통한 세분화된 도보관광여행 동기의 관광만족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인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관광만족은 높다’는 채택되었다.

<표 4-19> 도보관광여행과 관광만족 간의 관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S.E.	C.R.
도보관광여행 동기 → 관광만족	.510	.473	.050	10.093*

주: *는 $p < .05$ 값이다

3.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관광만족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균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은 현재가 아닌 삶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보관광여행을 통한 관광만족이 바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관광만족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입체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일정시간 이후 도보관광여행의 관광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정서균형은 현재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은 계수는 아니지만, 도보관광여행의 만족에 따라 정서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인 ‘관광만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기각 되었으나, 가설 3인 ‘관광만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은 높다’는 채택되었다.

<표 4-20>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S.E.	C.R.
관광만족 → 삶의 만족	.074	.049	.085	.870
관광만족 → 정서균형	.213	.204	.057	3.739*

주: *는 $p < .05$ 값이다

4.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충족된 도보관광여행 동기 정도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도보관광여행과 삶의 만족도의 경로계수는 0.538, p값은 0.000이며 정서균형과의 경로계수는 0.321, p값은 0.000으로 도보관광여행은 주관적 웰빙의 두 변수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을 통한 주관적 웰빙에서 삶의 만족이 정서균형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삶의 만족이 현재의 특정조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평가를 의미하는 반면, 정서균형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현재 시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고, 정서균형은 설문응답 순간의 감정, 상황, 설문요원의 태도, 설문문항 구성에 따른 응답 경향성 등 다양한 외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항목을 제거하였음에도 영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재검증을 위해서는 설문구성 및 설문요원의 철저한 사전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4인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은 높다’와 가설 5인 ‘도보관광여행 동기가 강할수록 관광만족도는 높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4-21>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S.E.	C.R.
도보관광여행 → 삶의 만족	.538	.332	.091	5.895*
도보관광여행 → 정서균형	.321	.286	.061	5.233*

주: *는 $p < .05$ 값이다

5. 가설 검증 결과와 논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별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총 5개로 크게 3가지 그룹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 간의 관계(H1)이고, 둘째는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H2-1, H2-2)이며, 셋째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H3-1, H3-2)이다.

도보관광여행과 관광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도보관광여행은 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보관광여행의 동기 충족 정도가 크면 클수록 관광만족 역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설 1인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관광만족은 높다’는 채택되었다.

이는 제주 올레길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제주도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게 된 하나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보관광여행 탐방객 유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도보 탐방코스 조성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보관광여행의 참여동기로 구분한 ‘일탈’,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 ‘사교’의 각 변수와 관광만족간의 관계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도보관광여행 전체의 관광만족을 측정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각 잠재요인에 따른 관광만족과의 유의한 영향력 검증을 통해 세분화된 도보관광여행 동기와 관광만족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관광만족은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균형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은 설문 응답시점이 아닌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보관광여행을 통한 현재의 만족이 바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2인 ‘관광만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기각되

었다. 그러나 실제로 관광만족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설문 응답 후 추적조사를 통해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당시의 관광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웰빙의 또 다른 변수인 정서균형은 관광만족과 정(+)의 영향에 있어 관광만족이 클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설 3인 ‘관광만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은 높다’는 채택되었다. 삶의 만족과 달리 관광만족이 정서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정서균형은 현재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감에 따라 감동·즐거움 등 긍정적 감정이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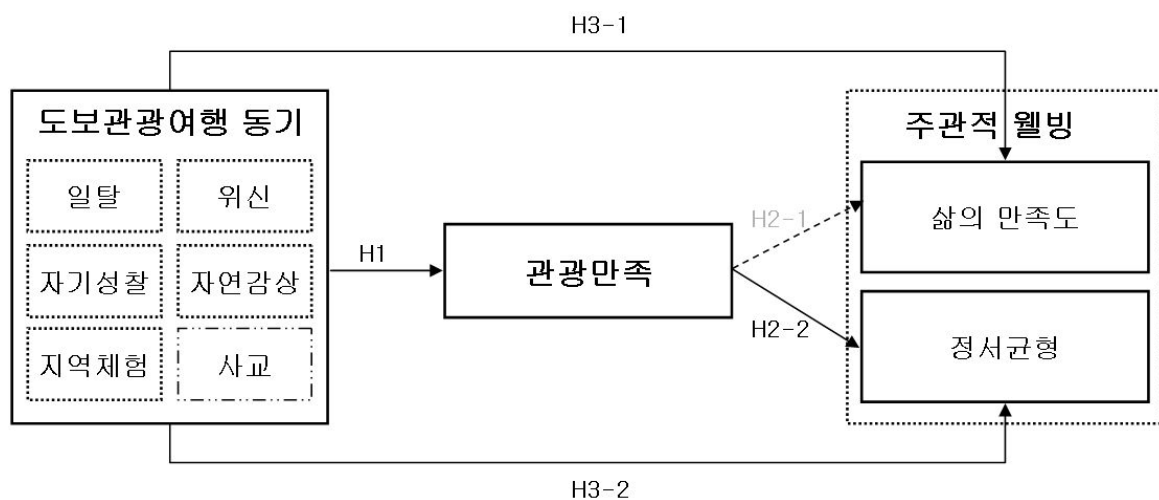
도보관광여행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도보관광여행은 주관적 웰빙의 변수인 삶의 만족과 정서균형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보관광여행의 동기가 충족될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며, 정서균형 역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설 4인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는 높다’와 가설 5인 ‘도보관광여행 동기 충족이 클수록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은 높다’는 채택되었다.

충족된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정서균형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 비해 정서균형이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서균형이 현재 상황의 개인 정서/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삶의 만족도는 삶 전체 범위의 장기적 관점에 대한 평가인 반면, 정서균형은 설문 응답 순간의 감정, 설문요원의 태도에 따른 감정 변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부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총 5개의 가설 검증결과를 반영한 최종모형은 [그림 4-5]와 같다.

상기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관광만족의 선행변수는 도보관광여행으로 도보관광여행과 관광만족간의 관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의 선행변수는 도보관광여행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광만족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의 선행변수는 도보관광여행과 관광만족으로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족된 도보관광여행 동기는 관광만족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정서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향후 연구에서는 추적조사를 통한 관광만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여부, 설문 응답시 환경 통제를 통한 정서균형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가설검증 결과 종합모형

제 4 절 도보관광여행자 특성별 차이분석

1. 도보관광여행 횟수에 따른 차이 검증

도보관광여행 횟수별 차이 검증 결과, <표 4-22>과 같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삶의 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균형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설문응답시의 응답자의 감정상태, 설문조사원의 태도와 같은 외생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감정을 검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삶의 만족을 살펴보면 6회 이상의 도보관광여행자가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 삶의 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2회~5회 이하의 도보관광여행자가 높았으며, 처음 도보관광여행자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낮았다.

이를 분석해 보면, 도보관광여행은 최초 참여를 통해 얻는 만족보다 참여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보관광여행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만족도 증가는 재방문으로 이어져 제주 올레길의 충성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 올레길을 관리·운영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현재의 탐방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안주하여 수동적으로 도보관광여행 탐방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탐방객 관리카드 등 탐방객관련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정보제공 메일, 계절별 홍보 자료 등의 발송을 통해 지속적인 올레길 방문유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표 4-22> 도보관광여행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도보관광여행 동기	처음	105	3.67	.379	5.379	2	.005*
	5회 이하	189	3.78	.389			
	6회 이상	59	3.88	.444			
관광만족	처음	105	4.19	.415	5.459	2	.005*
	5회 이하	189	4.27	.425			
	6회 이상	59	4.42	.458			
주관적 웰빙	처음	105	3.09	.360	2.766	2	.064
	5회 이하	189	3.13	.392			
	6회 이상	59	3.24	.420			
삶의 만족	처음	105	3.32	.582	3.815	2	.023*
	5회 이하	189	3.42	.657			
	6회 이상	59	3.61	.717			
정서균형	처음	105	2.87	.349	.561	2	.571
	5회 이하	189	2.83	.356			
	6회 이상	59	2.87	.364			

주: *는 $p < .05$ 값이다

2. 도보관광여행 참여 경력에 따른 차이 검증

도보관광여행 참여 경력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23>와 같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경력별 표본수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49.0%(173명), 6개월~2년 미만이 32.0%(113명)으로 2년 이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분석의 타당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7년 개장한 제주 올레길에서 시작된 도보관광여행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초기단계이며 도보관광여행이란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도보관광여행은 6개월~12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관광만족 역시 6개월~12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3> 도보관광여행 참여 경력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도보관광여행 동기	3개월 미만	134	3.68	.383	5.113	4	.001*
	3~6개월 미만	39	3.77	.310			
	6~12개월 미만	49	3.91	.390			
	1년~2년 미만	64	3.71	.410			
	2년 이상	67	3.88	.401			
관광만족	3개월 미만	134	4.18	.410	3.662	4	.006*
	3~6개월 미만	39	4.21	.395			
	6~12개월 미만	49	4.40	.430			
	1년~2년 미만	64	4.33	.442			
	2년 이상	67	4.35	.460			
주관적 웰빙	3개월 미만	134	3.10	.373	1.178	4	.320
	3~6개월 미만	39	3.19	.360			
	6~12개월 미만	49	3.18	.381			
	1년~2년 미만	64	3.09	.380			
	2년 이상	67	3.19	.445			
삶의 만족	3개월 미만	134	3.33	.626	2.134	4	.076
	3~6개월 미만	39	3.45	.536			
	6~12개월 미만	49	3.57	.620			
	1년~2년 미만	64	3.35	.698			
	2년 이상	67	3.55	.715			
정서균형	3개월 미만	134	2.87	.338	1.052	4	.380
	3~6개월 미만	39	2.93	.449			
	6~12개월 미만	49	2.79	.340			
	1년~2년 미만	64	2.83	.350			
	2년 이상	67	2.83	.340			

주: *는 $p < .05$ 값이다

3. 도보관광여행 참여시간에 따른 차이 검증

도보관광여행 참여 시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24>과 같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단일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은 2박 3일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그 이상’, 1박 2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광만족은 ‘그 이상’이 가장 높았고 2박 3일, 1박 2일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주관적 웰빙과 삶의 만족 역시 ‘그 이상’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 올레길 도보관광여행이 하루 이내의 통과형이 아닌 체류형 공간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체류 및 숙박편의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24> 도보관광여행 참여시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도보관광여행 동기	반나절	71	3.58	0.42	10.875	4	.000*
	하루	99	3.67	.037			
	1박2일	82	3.85	.042			
	2박3일	77	3.93	.047			
	그 이상	24	3.88	.078			
관광만족	반나절	71	4.13	.345	4.187	4	.003*
	하루	99	4.25	.404			
	1박2일	82	4.28	.451			
	2박3일	77	4.39	.459			
	그 이상	24	4.42	.453			

<표 계속>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주관적 웰빙	반나절	71	3.00	.398	3.131	4	.015*
	하루	99	3.18	.367			
	1박2일	82	3.14	.385			
	2박3일	77	3.18	.400			
	그 이상	24	3.22	.361			
삶의 만족	반나절	71	3.18	.642	3.413	4	.009*
	하루	99	3.52	.586			
	1박2일	82	3.43	.618			
	2박3일	77	3.48	.753			
	그 이상	24	3.55	.566			
정서균형	반나절	71	2.81	.373	.383	4	.821
	하루	99	2.84	.355			
	1박2일	82	2.85	.375			
	2박3일	77	2.87	.308			
	그 이상	24	2.89	.383			

주: *는 $p < .05$ 값이다

4. 도보관광여행 지속 참여의사에 따른 차이 검증

도보관광여행 지속 참여의사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25>과 같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 단일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정서균형 모든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균형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매우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균형 부분에서는 ‘없다’에 이어 ‘매우 있다’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속참여의사별 표본수를 살펴보면 ‘있다’와 ‘매우 있다’가 82%(288명)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도보관광여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표 4-25> 도보관광여행 지속 참여의사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도보관광여행 동기	전혀없다	3	3.45	.239	7.643	4	.000*
	없다	13	3.60	.442			
	보통이다	49	3.56	.292			
	있다	180	3.76	.399			
	매우있다	108	3.90	.397			
관광만족	전혀없다	3	3.78	.192	12.963	4	.000*
	없다	13	4.05	.356			
	보통이다	49	3.99	.225			
	있다	180	4.28	.409			
	매우있다	108	4.44	.469			
주관적 웰빙	전혀없다	3	2.44	.337	4.459	4	.002*
	없다	13	3.26	.405			
	보통이다	49	3.02	.382			
	있다	180	3.14	.375			
	매우있다	108	3.19	.391			
삶의 만족	전혀없다	3	2.33	1.155	3.466	4	.009*
	없다	13	3.45	.679			
	보통이다	49	3.24	.575			
	있다	180	3.44	.636			
	매우있다	108	3.49	.665			
정서균형	전혀없다	3	2.56	.338	2.679	4	.032*
	없다	13	3.08	.104			
	보통이다	49	2.80	.060			
	있다	180	2.83	.024			
	매우있다	108	2.85	.034			

주: *는 $p < .05$ 값이다

5. 도보관광여행 동반인원에 따른 차이 검증

도보관광여행 동반인원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는 <표 4-26>과 같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단일 주관적 웰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보관광여행에서는 2~4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단일 주관적 웰빙에서는 5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6> 도보관광여행 동반인원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도보관광여행 동기	혼자	55	3.41	.373	29.373	2	.000
	2인~4인 이하	199	3.84	.340			
	5인 이상	99	3.82	.428			
관광만족	혼자	55	4.33	.469	.600	2	.549
	2인~4인 이하	199	4.26	.421			
	5인 이상	99	4.28	.440			
주관적 웰빙	혼자	55	3.08	.367	4.050	2	.018
	2인~4인 이하	199	3.10	.369			
	5인 이상	99	3.23	.427			
삶의 만족도	혼자	55	3.37	.654	2.568	2	.078
	2인~4인 이하	199	3.37	.633			
	5인 이상	99	3.55	.677			
정서균형	혼자	55	2.79	.344	2.296	2	.102
	2인~4인 이하	199	2.83	.345			
	5인 이상	99	2.91	.374			

주: *는 $p < .05$ 값이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웰빙은 몸과 마음의 건강·삶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연에서 삶의 방법을 추구하며, 물질만능의 소비사회를 부정하고 자연주의에 입각한 정신적이며 소비적인 생활패턴을 추구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체험형 여가활동을 확산시켰으며, 그 중 하나가 걷기이다. 걷기를 중심으로 한 도보관광여행은 삶의 질을 제고하며 ‘웰빙’의 가치를 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제주 올레길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도보관광여행이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해, 도보관광여행자의 내적 상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충족이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 등의 내적 변화 요인들을 높이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선행연구들의 측정척도를 활용하여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보관광여행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기타 문헌조사, 그리고 측정변수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있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을 통해 수집한 설문지 총 400부 중 총 353부의 유효 표본을 가지고 연구 가설과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도보관광여행 참여행태에 따른 도보관광여행,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요인들 간의 서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

해 AMOS 18.0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일탈’,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 ‘사교’의 도보관광여행의 동기(박시사, 노경국, 2010)가 충족된 것으로 정의하여 활용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28문항 중 ‘사교’ 요인이 부(-)의 관계를 나타내 삭제하였으며, 적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수정지수를 통해 제거하였다. 그 후 각 요인을 단일항목으로 변환하여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의 연구모형 가설 검증에 적용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과 정서균형으로 나누어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11문항 중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절대적합지수의 기준인 χ^2 값과 p값이 각각 20.469, .000, GFI=.973, AGFI=.727, RMR=.019, RMSEA=.235로 나타났다. 또한, 증분적합지수는 NFI=.910, IFI=.914, CFI=.912로 나타나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는 모두 최적 모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별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총 5개의 연구가설은 크게 3가지 그룹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간의 관계(H1)이고, 둘째,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H2-1, H2-2)이며, 셋째,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H3-1, H3-2)이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은 관광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충족 정도가 크면 클수록 관광만족 역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 올레길이 조성 3년 만에 제주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의 동기를 ‘사교’요인을 제외한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일탈’,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 ‘사교’의 각 구성요인에 따른 관광만족과의 유의

한 영향력 검증이 필요하다.

관광만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관광만족은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균형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삶의 만족은 설문 시점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한 응답인 반면, 정서균형은 설문시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 관광만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밀하고 입체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일정기간 이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도보관광여행은 주관적 웰빙의 변수인 삶의 만족과 정서균형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보관광여행의 동기가 충족될수록 삶의 만족도와 정서균형 모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 분석 결과 5개의 연구가설 중 4개 가설은 채택(H1, H2-2, H3-1, H3-2)되었고 1개의 가설은 기각(H2-1)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광만족의 선행변수로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의 선행변수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으로 분석되었고, 관광만족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중 정서균형의 선행변수로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관광만족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충족은 관광만족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정서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자의 참여행태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횟수에 따라 도보관광여행, 관광만족,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항목 모두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도보관광여행의 동기충족, 관광만족,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동적 자세로 도보관광여행자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최초 및 초기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재방문 유도를 통한 적극적 충성고객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도보관광여행과 관광만족은 유의하게 나왔으며, 삶의 만족도는 유의확률을 0.1로 하였을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 올레길이 2007년 개장하여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도보관광여행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초기단계로 아직까지는 경력에 따른 차이검증을 보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시간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정서균형을 제외한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삶의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항목 모두 2일 이상 올레길 탐방에 참여할 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주 올레길은 하루 이내의 경유 또는 통과형 자원이 아닌 체류형 관광자원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체류 및 숙박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지속 참여의사에 따른 차이 검증은 도보관광여행, 관광만족, 삶의 만족도, 정서균형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표본 수에서도 도보관광여행의 지속 참여의사가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동반인원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과 단일 주관적 웰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은 2~4인의 소규모 그룹일 때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웰빙은 5인 이상의 단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걷기가 사색·명상 등 개인 중심의 체험형 여가활동이라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과로 향후 다양한 방법에서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제 2 절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정서균형)간의 관계 규명에 따른 영향력 검증과 도보관광여행자의 참여행태 파악을 통해 현실적인 도보관광여행 코스 관리 및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만족은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서균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균형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이 관광만족을 통해 주관적 웰빙이란 내적 변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보관광여행 자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동기충족만으로도 주관적 웰빙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보관광여행의 횟수 및 참여기간이 많을수록 도보관광여행 동기충족, 관광만족, 주관적 웰빙 모두 높아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동기충족과 만족도와 웰빙감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올레길을 비롯한 도보관광여행 코스 관리기관에서는 최초 및 초기 탐방객의 재방문 유도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탐방 중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셋째, 도보관광여행 지속적인 참여의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보관광여행 수요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도보탐방코스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제주 올레길로의 재방문 및 지속 참여 유도를 위한 탐방객 정보 DB 구축 및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보관광여행에 대한 연구의 본격화 기간이 짧아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그 이론적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측정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아닌 연구모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로, 선행연구에서의 측정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에서 값이 낮은 것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연구모형이 일반화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측정척도의 수정 및 개발을 통한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간적·공간적 한계와 임의적 표본추출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올레길 전체, 도보관광여행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은 실시하였으나, 설문지역의 범위가 넓어 설문 조사원의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관광만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삶의 만족은 인생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일순간의 관광만족이 삶 전반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할 수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도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관광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지역이며, 제주 올레길은 그 중 대표적인 관광자원임을 고려할 때,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대표적인 도보관광여행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연구를 통해 도보관광여행관련 이론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보성(2003). 「인터넷 관광정보 이용경험이 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 관광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동우(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상동(1996). 「서비스 품질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휴양콘도미니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택(2001). 「관광이벤트의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사현(1993). 위락만족도의 결정요인: 예상 및 실제혼잡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1:3-7.
- _____(2007). 『관광학 연구방법론』, 백산출판사.
- 김완석·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61-81.
- 김원인(1994). 관광지 선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18(1): 1-12.
- 김영식(2006). 「요가수련 참가정도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호(2006).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기 및 인지. 『학생심리학회지: 건강』, 16: 453-484.
- _____.유재민·서경현·임성견·김선주·김미리혜·공수자·강태영·이지선·황정음(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15(1): 187-205.
- 김재호(2008). 「관광의례화와 구매 후 태도간의 관계 연구: 문화유산관광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1). 비무장지대(DMZ)일원 관광객의 관광동기: 관광목적지 간의 비교. 『한국관광학회』, 35(4): 95-112.
- 김현지(2007). 헬스투어 참가 여부에 따른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평가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학회』, 31(2): 165-186.

- 나윤중(2001). SERVQUAL 모형을 이용한 관광만족도 측정의 보완. 『관광학 연구』. 24: 3
- 류연지(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인평(2011). 지역축제의 참여동기와 만족,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5(3): 337-352.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0). 도보여행과급효과분석. 문화체육관광부.
- 박경란(2009).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 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287-300.
- 박경혜(2004).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 개인내적 변인과 관계를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대한(2001). 「서울시티투어 이용객의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혜(2001). 「관광자의 가치와 관광에서의 심리적 체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기·홍승표(2004). 주관적 웰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5.
- 박석희(2005). 농촌관광이 방문자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연구계획서. 경기대학교.
- _____ (2007).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 박시사·노경국(2010). 도보여행객의 여행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 제주올레여행객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한국관광학회 제 68차 심포지엄.
- 박영아·현용호(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심상적 연구 :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7): 75-93.
- 박영일(2007). 「체험유형 선호에 따른 농촌체험관광마을태도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길·유정인(2008).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동기와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19(1): 115-128.
- 박창규(1998). 「관광자 만족 결정경로와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규·엄서호(1008). 기대와 지각된 성과가 관광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317-323.
- 변수녀(2009). 「관광목적지 대안평가 유형별 관광동기, 관광만족 및 충성도 간의 구조모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부공민(2007). 「오름 트레킹 참여동기와 만족도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단법인 제주올레(2009). www.jejuolle.org
- 서경현·김정호·유재민(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1): 169-186.
- 손혜경·손대현(2008).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축제 참여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0(1): 3-24.
- 심상화(2001). 「테마관광자의 만족결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서영(2003). 「잠재배낭여행객의 여행동기와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경(2006a). 「한류(韓流)관광객의 몰입(flow)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TV드라마 촬영지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b). 몰입(flow)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드라마 촬영지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1(1): 389-400.
- 윤동구(2000). 「관광객 만족구조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연(2004). 「대학생의 여가자원과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웰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곤·류재숙(2007). 제주도 방문객의 관광동기 및 이미지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9(2): 187-203.
- 이애주(1988).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재(1995). 고객만족의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논집』. 29(1/2): 145-168.
- 이유라·노경국·박시사·허향진·김태진(2009). 스포츠이벤트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참여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1(1): 44-57.
- 이정순(2004). 「관광활동이 관광·여가만족과 웰빙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순·전원배(2005). 관광활동·여가만족·심리적 웰빙(well-being), 주관적 웰빙(well-being)의 관계. 『관광학연구』 28(4): 150-172.

이학식·임지훈(201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집현재.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문사.

이향희(2008). 「걷기에 의한 심상의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번장(1995). 여가와 삶의 질, 한국 스포츠사회학보. 제 8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8.

여호근·김대환·손일화(2005).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의 관계 연구: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제58차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 309-322.

윤설민(2007). 「축제개최 관광지의 매력평가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매매(2009). 「서울관광이미지 평가와 관광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호성(2008). 「관광지 방문 후 이미지가 태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명숙(2009). 슬로우관광의 탐색적 고찰: 제주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추계학술발표집』. 한국항공경영학회.

전매희·윤지희(2006).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7(1).

정병은(2007).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관적 삶의 질 비교: 경제 및 건강,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가족, 정부 그리고 계층.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움. 25-46.

정용길(1997). 소비자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논문집』. 31(1/2): 376-403.

제주관광공사(2010), 제주 올레길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제주관광연구원(2010), 걷는 길의 가치를 높인 제주 올레 보전 및 관리방안

최성애(1998). 「노인의 레저 스포츠 활동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인석(2007). 「국내 골프관광동기, 관광지 속성평가, 만족, 불평행동,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철형(2006). 「스키리조트 이용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경수(1990). 관광객행동론. 서울: 형설출판사.

한영호(2004). 「현대 소비사회에서 웰빙 트렌드의 개념과 소비성향 분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G 주간경제. 2004년 2월 18일.

Andrews, F. M., and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Brake, M.(1980)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 and Youth subculture, London:Rputhedge and Keganpaul

Baker, D. A., and Crompton J. L.(2000). D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785-804.

Bearden, W. O., and J. E. Teel(1983). Selected Detrminants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Complaint Reports. *Journal of Marketing*, 20(February): 21-28.

Breton, D.(2000). *Eloge de la marche*: 걷기 예찬. 번역서; 현대문학.

Byunggook kim.(2009). A conceptual framework for leis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heung, C. H. (1999). The meanings of a heritage trail in Hong Ko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3), 570-588.

Chhetri, P., Arrowsmith, C., & Jackson, M. (2004). Determining hiking experiences in nature-based tourist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25(2004), 31-43.

Clawson, Marion and J. Knetsch(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Dann, G. M. S.(1981). Tourist Motivation: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4(4), 187-219.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_____,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_____(1995). A value based index for measuring natinal quality of life. Manuscript in preparation.
- _____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Schwarz(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Suh, E.,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tin*. 125. 276-302
- Fisher, A. C., and J. V. Krutilla(1972). Determination of Optimal Capacity Resource Based Recreation Facilities. *Natural Resources Journal*, 12: 417-444.
- Gu, H., and Ryan, C. (2008). Place attachment, identity and community impacts of tourism-the case of a Beijing hutong. *Tourism Management*, 29, 637-647.
- Gyimóthy, S., and Mykletun, R.J.(2004). Play in adventure tourism: the case of Arctic Trekk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4), 855-878.
- Higgins, C. A., and Duxbury, L. E.,(1992). Work-family conflict: Acomparision of dual-career and traditional-career me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389-411.
- Keul & Kühberger, A.(1997). Tracking the Salzburg touris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 1008-1012.
- Kopelman, R. E., Greenhaus, F. H., and Connolly, T. F.(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ity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s and Human Performance*, 32, 198-215.
- Murray, M., and Graham, B. (1997). Exploring the dialectics of route-based tourism: the Camino de Satiago. *Tourism Management*, 18(8), 513-524.
- Myers, D. G., and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oe, F. P.(1987). Measurement Specific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9(3)

- Oliver, R.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 _____, and J. E. Swan(1989a). Equity and Disconfirmation Perceptions as Influences on Merchant and Product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December): 372-383.
- _____, and J. E. Swan(1989b). Consumer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Equity and Satisfaction in Transactions: A Field Survey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53:21-35.
- _____, and W. S. Desarbo(1988). Response Determinants in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March): 495-507.
- _____(1993), Cognitive Affective and Attitudinal Bases of the Satisfaction Respon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pp.418-428.
- Otto, J. E., and Ritchie, J. R.(1996). The service experience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17(3), 165-174.
- Pearce, P.(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tourist behavior*. Oxford: Pergamon Press.
- Pizam, Abraham and Y. Neuman and A. Reichel.(1978). Dimensions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a Destination Ar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 Ryan, R. M., and Deci, E. L.(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Psychology*, 52, 141-166
- Schiffman, L. G., and Kanuk, L. L. (1987). *Consumer Behavior*: prentice hall.
- Solnit, R.(2000). *Wanderlust: A history of Walking*. USA: Viking Penguin.
- Tse, D. K., and P. C. Wilton(1988).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May): 204-212.
- Uysal, M. Gahan, L. W., and Martin, B. (1993).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1). 5-10.
- Van Raaij, W. Fred and Dick A. Francken(1984). Vacation Decision, Activities, and Satisfa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1): 101-112.
- Wang, N. (1997). Vernacular house as an attraction: illustration from hutong

tourism in Beijing. *Tourism Management*, 18(8), 573-580.

Westbrook, Robert. A.(1987). Product/Consumption-Based Affective Responses and Post-Purchase Process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August), 258-270.

Westbrook, R. A., and R. L. Oliver(1991). The Dimensionality of Consumption's Emotion Patterns and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june): 84-91.

도보관광여행에 관한 설문조사

No.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대학원 여가관광개발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이 조사는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궁극적으로 도보여행객의 삶의 질 향상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는 순수한 학술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진솔한 생각으로 응답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여가관광개발학 전공

연구자 : 석사과정 이정훈 지도교수 : 박석희 교수

연락처 : 010-8652-8099 / 이메일 : bestu@nate.com

※ 해당란에 (V)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이번 도보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얼마나 도보관광여행을 다니셨습니까?

① 이번이 처음 ② 2~3회 ③ 4~5회 ④ 6~7회 ⑤ 8회 이상

2 귀하께서 도보관광여행을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12개월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 이상

3 귀하께서는 이번 도보관광여행에 참여하시는 시간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① 반나절 ② 하루 ③ 1박 2일 ④ 2박 3일 ⑤ 그 이상

4 귀하께서는 앞으로 도보관광여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예정이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5 귀하의 이번 도보관광여행의 동반인원은 몇 명입니까?(응답자 포함)

① 혼자 ② 2인 ③ 3~4인 ④ 5~10인 ⑤ 10인 이상

II 다음은 이번 도보관광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었다					
2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반복되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3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4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5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기분을 전환했다					
6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혼잡한 곳을 벗어났다					
7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휴식을 취했다					
8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평온함과 한적함을 느꼈다					
9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10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현재 상황을 탈출했다					
11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나의 가치를 생각했다					
12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13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14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자기계발을 했다					
15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					
16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제주관의 문화 및 예술을 체험했다					
17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익혔다					
18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19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제주의 전통 의식주를 체험했다					
20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단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21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았다					
22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나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생활을 했다					
23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감상했다					
24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25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제주도의 경관을 감상했다					
26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자연을 가까이 느꼈다					
27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8	이번 도보관광여행 참여를 통해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했다					

II 다음은 관광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번 도보관광여행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2	나는 이번의 올레길 걷기에 만족한다					
3	나는 이번의 도보관광여행을 선택한 것에 만족한다					

II 다음은 주관적 웰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적으로 나는 내가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					
2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3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4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5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II 다음은 지금의 기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금 즐겁다					
2	나는 지금 유쾌하다					
3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4	나는 지금 불쾌하다					
5	나는 지금 낙담하고 있다					
6	나는 지금 우울하다					

※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V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학 재학 및 졸업 ④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의료, 언론, 법조, 교육 등) ② 사무행정관리직(공무원, 회사, 금융, 기업체 관리 등)		
	③ 자영업(장사, 개인사업 등) ④ 기술직(토목, 건축, 엔지니어 등) ⑤ 주부 ⑥ 학생 ⑦ 기타()		
5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6	귀하의 월 소득에 만족 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7	귀하의 거주지는?	()도/광역시/직할시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of walking tourist - Focusing on the Jeju Olle trail -

Lee, jung hoon

Department of Leisure and Tourism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acknowledges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of tourists by using the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in the research of tourism which is a part of leis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otivation for walking tour increases tourists' satisfaction so that it attracts revisit and ultimately affects the subjective well-being in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balance.

To achieve this purpose, Jeju Olle trail which has 24 walking paths(19 main paths and 5 alpine paths) and is the starting point of a recent craze for walking tour in South Korea was selected for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400 visitors to the most visited Path 7, 8, 9, 10 during September 21th to 25th 2011 as this period had good weather condition therefore there were most walking tourists in Jeju.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major variables, T-test and ANOVA were chosen. Path analysis from AMOS 18.0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study model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This study was proceeded with two parts. The first part was to examine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walking tour, tourist motivation satisfaction, touris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reviewing precedent studies. Walking tour can be defined as the walking behavior along the trail learning local nature, culture and history as well as having a chance for introspection through contemplation. The motivations for walking tour are classified into deviance, introspection, local experience, prestige, landscape viewing and social activity, etc. Tourist motivation is the force to proceed to the next phase from the pre-selection phase of tourist behavior or tourist activity. Induction of tourist motivation is the force for tourist motivation to move on to the next phase and tourist motivation satisfaction can be explained as the motivation which deals with the mental state after tourist experience. Tourist satisfaction is based on the personal experience of tourists when purchasing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and it is the subjective mental state from comparative evaluation between the expectation of tourist activities and the actual perception. If the actual perception of the experience is superior to the expectation, tourist will be satisfied and vice versa. The subjective well-being can be defined as the level of perception of individual assessments or positive or negative feelings over the personal life in general and it is categorized into emotional balance such as life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Therefore high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is the state where there are high positive affect and low negative affect as well as the high life satisfaction.

In the second part,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between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touris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empirically analysed using the scale derived from reviewing

precedent stud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ourist satisfaction increased in proportion to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Tourist satisfaction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while it has proportional influence on emotional balance.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also had proportional influence both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balance. Consequently,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had significant effect on tourist satisfaction as well as subjective well-being, on the other hand, tourist satisfaction had only influence on emotional balance.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the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has direct influenc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without going through tourist satisfaction.

This study derived some implications by verifying the differences of the behavior of walking tourists.

Firstly, aggressive strategy for securing loyal tourists is necessary by attracting re-visit of the first visitors. Secondly, accommodation and various conveniences to attract longer stay need to be developed, as walking tour usually requires overnight stay. Thirdly, More than 80% of tourists were willing to keep participating in walking tour. Lastly,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was the highest among the 2-4 tourists group, while subjective well-being was the highest among the more than 5 tourists group. This result goes against the common sense that walking is an individual type of leisure activity such as contemplation. Thus, this needs to be reinvestigated with various methods in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s in some respects. First of all, subjective well-being was measured targeting a specific leisure activity and this is unusual for tourism sector not like psychology and social welfare studies which has usually targeted to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satisfaction as a whole. Secondly, this study contributed to foundation of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walking tour, which is recently drawing high attenti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irdly, the existing concept of tourist motivation was expanded to induction of tourist motivation and tourist motivation satisfaction. Next, it was discovered that the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had direct influence on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depending on the motivation satisfaction of walking tour. Finally, this study also drew practical implications for securing tourism competitiveness of walking tour destination from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